

↑ 코스피 2867.38 (+9.62)	↑ 코스닥 860.42 (+1.15)
↓ 금리 (연이자율) 3.100 (-0.019)	↓ 환율 (원/달러) 1381.60 (-1.70)

고삐 풀린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에 '영끌·빚투' 부활

5대 은행 가계대출, 나흘새 2조 ↑
주담대 8387억 신용대출 1조 증가
DSR 규제 미루자 투자열풍 점화
전문가, 일관된 부채축소정책 필요

부동산 '영끌'과 빚을 내 투자하는 '빚투' 열풍이 부활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책 엇박자로 만들어진 상황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는 미뤄졌던 정책을 조기에 실행시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총 710조 75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708조 5723억원에서 나흘 만에 2조 1835억원이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지난 6월에만 5조 3415억원 늘어나면서 지난 2021년 7월(6조 2009억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뒀 바 있다. 이 같은 추세면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52조 1526억원에서 552조 9913억원으로 8387억원 늘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정책대출의 수요가 커지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주간 기준)을 보이면서 주택매수 심리가 살아났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은 지난달 말(102조 7781억원) 대비 나흘 만에 1조 879억원 증가하면서 103조 8660억원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D데이

삼성전자는 오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카루젤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에서 '갤럭시 언팩'을 개최한다. '카루젤 뒤 루브르'는 유서깊은 루브르 박물관의 지하에 위치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시회, 패션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연중 운영된다. 루브르의 상징과 같은 유리 피라미드가 역방향(지상에서 지하로)으로 솟아져 있는 '카루젤 뒤 루브르'의 중앙 공간 주변에는 갤럭시 언팩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방문객들을 맞으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회복, 대어급 IPO(기업공개) 상장, 비트코인 저가 매수 등으로 '빚투'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가계대출 급등세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서 엇박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정부는 당초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시점을 두 달 뒤로 미뤘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밝힌 가계대출 목표량에 여유가 있어 늦췄다고 설명했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면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오는 12일 시행), 케이뱅크는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또한 지난 3일 시중은행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소집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주문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느껴 오는 10일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라가락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는 전세대출 DSR 적용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조기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대출 DSR 적용은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최근 금감원이 은행권에 전세대출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조만간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풀면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계부채 축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물가 안정세 예상 내수도 점차 개선”

이창용 한은총재 기재위 업무보고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물가의 둔화 흐름은 주춤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하락)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6월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로 1년 전과 비교해 2.4% 올랐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월과 3월 3.1%에서 4월 2.9%, 5월 2.7%로 둔화하는 추세다. 이 총재는 이 같은 흐름이 내수 개선으로 이어져 올해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근원물가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로 둔화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하반기 내수 개선세로 이어지면서 올해 2.5%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률 2%대 둔화 ‘긍정적’
25만원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취약계층 등 맞춤형 지원 해야

◆ 민생회복 지원금, 취약계층 선별지원 필요

이날 이 총재는 내수개선을 위한 25만원의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5만원을 지급할 경우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호조여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계층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하락에 따른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하며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건설경기 악화에 시멘트·레미콘업계 '보릿고개'

원자재 수요 급감 속 곳곳 북병
시멘트값·레미콘운송비 '쟁점'
주택경기 회복까지 시간 걸릴 듯

시멘트, 레미콘이 보릿고개를 한창 넘고 있다. 전방산업인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원자재적인 시멘트, 레미콘 수요가 크게 줄면서다.

하반기에도 주택건설경기가 살아날지 미지수여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등 시계제로 상대다.

이런 가운데 운송사업자(기사)들의

과업 고비를 넘긴 레미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송비(운반비) 인상 여부를 놓고 레미콘회사와 기사들간 줄다리기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 시멘트값을 놓고선 시멘트회사와 건설사가 맞서고 있다. 시멘트와 레미콘 수요가 크게 위축돼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곳곳에서 북병까지 만나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시멘트·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시멘트와 레미콘은 수요 위축으로 올해 상반기 공급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 R

eady Mixed Concrete'의 약자인 레미콘(REMICON)은 시멘트와 모래·자갈 등 골재, 혼화제, 물을 섞어 만든다.

시멘트의 경우 생산량은 올해 1분기(속보) 1049만톤(t)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의 1173만t보다 10.6% 감소했다. 출하량 역시 같은 기간 1211만t에서 1053만t으로 13%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6월 들어 출하량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2분기는 더욱 위축됐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2분기부터는 시멘트 수요가 늘면서 출하

도 증가한다. 4분기도 대표적인 성수기다. 하지만 2분기부터 눈에 띄게 감소폭이 커졌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하량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시멘트 출하량(내수 기준)은 2475만t(2019년)→2323만t(2020년)→2408만t(2021년)→2424만t(2022년)→2604만t(2023년)을 각각 기록했다.



▲야, '尹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모녀 부른다
▲ 이재명, 내일 대표 출마 선언...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 (사진 뉴스스)

▲ 정부 “김일성 추모 기준 수위... 김정은 부상화 속도조절”
▲ 나경원·원희룡·윤상현, 원외자유우파 모임 집결... “우파 진지 구축 필요”



▲ 한총리,尹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유럽시장 진출 확대 기회”
▲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거부권 수순 (사진 뉴스스)

한미약품, 항암제·비만약 등 개발 박차... '신약' 성과 눈 앞

경영체제 변화 속 '본업 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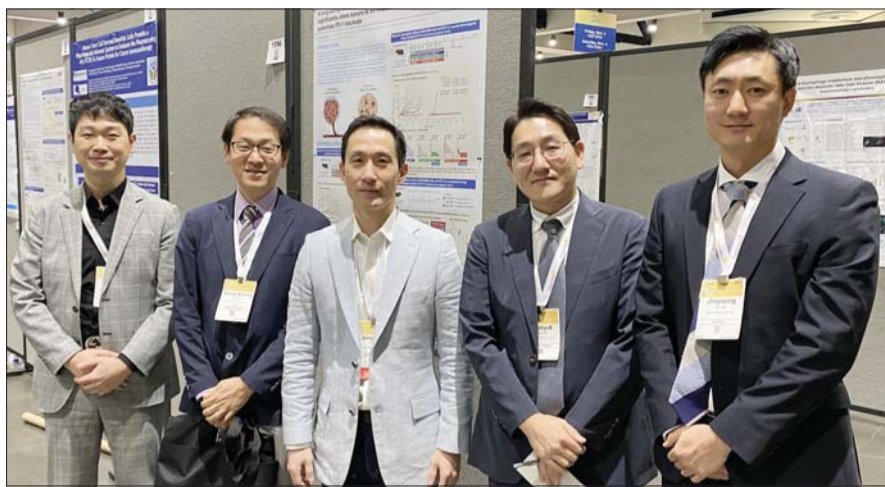
美 FDA서 'HM16390' 임상 계획 3년내 '한국형 비만약' 탄생 기대
고혈압·희귀질환 치료제 연구 가속

한미약품그룹의 경영 체제 변화가 예고돼 주주와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차세대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한미약품이 면역항암제로 개발 중인 'HM16390'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받은 것.

해당 임상에서 한미약품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HM16390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 약력학 특성 등을 평가한다.

HM16390은 인터루킨-2(IL-2) 변이체다. 인터루킨-2는 면역세포의 분



지난해 11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면역항암학회(SITC)'에서 한미약품의 차세대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 후보물질 'HM16390'의 임상 1상 책임 연구자를 맡은 박종철 교수(가운데)와 한미약품 ONCO임상팀 노영수 이사(왼쪽에서 첫 번째), 최재혁 R&D센터 그룹장(왼쪽에서 네 번째), 김진영 파트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미약품

화와 증식에 관여해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미약품은 독자 플랫폼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항종양 효능, 안전성, 지속성 등을 극대화하는 작용기전을 연구하고 있다.

HM16390이 기존 IL-2 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전임상 결과를 입증해 왔고, FDA에서 요구하는 혁신적 임상 디자인을 반영해 신속하게 IND

승인을 획득하는 성과를 창출했다는 것이 한미약품 측의 설명이다.

또 한미약품은 '한국형 비만약' 탄생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한미약품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에페글레타이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임상 종료는 오는 2026년 상반기로 예상돼 한미약품은 향후 3년 내 국내에서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에페글레타이드의 경우, 한미약품의 바이오의약품 전용 공장 '평택 스마트플랜트'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경제적 비용, 안정적 공급 등을 통해 약물 접근성과 지속성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의 또 다른 비만 신약후보물질 HM15275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미국당뇨병학회(ADA 2024)'에서 주목을 받았다. HM15275는 삼중 작용제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위 억제 펩타이드, 글루카곤 등 각각의 수용체 작용을 최적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해당 물질이 비만 치료뿐 아니라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서 효력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연말에는 '에페글레타이드', 'HM15275'에 이어 비(非)인크레틴 작용 기전의 신개념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미약품은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저용량 고혈압 3제 복합제', 희귀 유전성 대사질환 파브리병 치료제 'LA-GLA'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그룹이 겪고 있는 경영권 관련 갈등과는 달리, 신약개발이라는 본업 활동은 견고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뿐 아니라 신약개발 명가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한 연구개발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밝힌 가운데, 업계는 한미약품의 R&D 성과, 핵심 품목의 매출 성장 등을 감안하면 회사가 앞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증권 업계에서는 한미약품의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액이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한 3871억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한 54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장전망치인 매출액 3869억원, 영업이익 469억원에 매출액은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상회하는 호실적을 낼 것으로 예측했다.

/이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산업부, AI 전문 디자이너 1만명 키운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 공개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4개 전략 추진

정부가 AI(인공지능) 전문 디자이너 1만명을 양성하는 등 국내 디자인산업에 AI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자인 혁신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LG사이언스파크에서 안덕근 장관과 디자인 기업·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디자인 확산 전략'을 공개했다.

AI 디자인 확산 전략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핵심 경쟁력 확보 ▲신시장 창출 ▲AI 디자인 제도·규범 설계 등 4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디자인기업 AI 도입률 50%, AI 디자이너

1만명, AI 디자인 혁신기업 500개를 목표로 전산업의 디자인 활용률을 현재 37%에서 6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먼저, 7대 분야에서 'AI 디자인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트렌드 분석, 디자인 유사도 검색, 디자인 지식·연구 특화 경량언어모델(sLLM) 등 3대 AI 서비스 개발을 디자인진흥원 중심으로 착수한다. 2025년에는 소비재 디자인, 최적 공학 부품 설계 등 AI 디자인 활용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디자인 업계 수요를 발굴해 3년간 20개 AI 디자인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기술과 인재 등 AI 디자인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나선다. 올해 중 디자인컨셉트, 디자인생성, 프로토타이핑, 디자인-생산연동, 디자인 지식·보호 등 5대 분야에 필요한 AI 디자

인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R&D를 지원한다. 또 6대 권역별로 디자인창작랩을 구축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디자인 펀드 조성 및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AI 디자인 시장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제조, 네티, 엔지니어링 등 4대 산업 분야별 생성형 AI를 활용해 시장 분석, 제품디자인, 설계 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협업 프로젝트 150여 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안덕근 장관은 "AI 시대에 우리 디자인기업과 디자이너들이 누구보다 앞서 AI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해 세계 최고의 기업과 인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K-디자인이 AI를 활용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시멘트업계 "올해 연간 출하량 20% 줄어든 수도"

>> 1면 '건설경기 악화에...'서 계속

레미콘업계도 힘들긴 마찬가지다.

A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1~6월) 레미콘 출하량은 199만㎥(루베)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35만 ㎥에 비해 15.3% 가량 줄어든 양이다.

A사 관계자는 "2022년 상반기 출하량은 280만 ㎥이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년전에 비해 출하량이 28.9%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돼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출하량 기준으로 2021년에 353만 ㎥를 기록했던 B사도 2022년 318만

㎥, 2023년 335만 ㎥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수준보다 크게 하락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사는 1분기 기준으로 141만 ㎥에 그쳤다.

수도권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사업하면서 이런 적은 없었다. 전국적으로 레미콘 수요가 반토막이 났다. 사정이 그나마 나은 수도권도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물량이 줄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레미콘 기사들은 운송비를 올려달라고 압박하고 있어서 면초가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물량이 가장 많이 집중해 있는 수도권의 경우 1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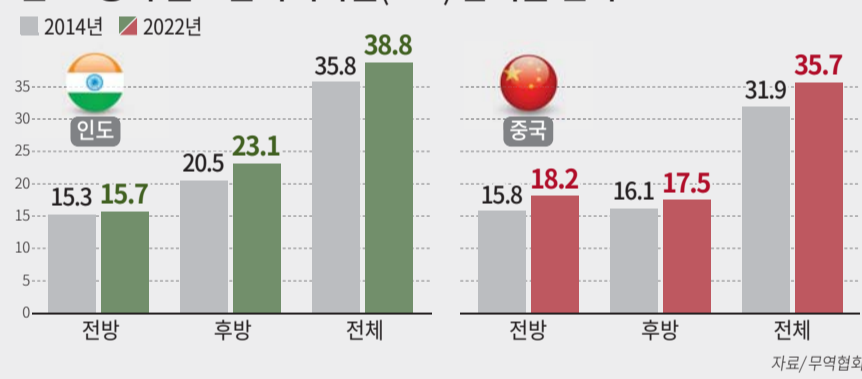
권역으로 나눠 개별 회사와 운송사업자 간 운송비 협상을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했다. 하지만 타결을 보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운송비 등을 놓고 지난 1일 파업에 돌입했다. 이틀후인 3일 철회한 바 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2018년 당시 ㎥당 6만6300원이었던 레미콘 단가(25~24-150 규격 수도권 협단가 기준)는 2023년 8만8700원으로 5년간 33.8% 올랐다. 2019년에 동결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도·중국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율 변화



'글로벌 생산기지' 中 가고 인도 온다

무협, 인도 투자진출 진단
인도 GVC 후방참여율 23.1%로 8년전 20.5% 보다 2.5%p 상승
중 전방참여율 증가 0.4%p 그쳐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할 것인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표한 '모디 총리 3연임과 대 인도 투자진출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탈중국 현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중국의 후방참여율 확대가 더딘 가운데, 인도가 이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VC 후방참여율이란 총수출 중 해외 중간재를 이용해 자국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으로, 후방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해외 중간재 수입 후 수출품을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인도의 GVC 후방참여율은 23.1%로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20.5%와 비교해 2.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총수출 중 자국 수출품이 외국 수출품 생산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비중인 GVC 전방참여율 증가는 0.4%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중국은 중간재 자급률이 빠르

게 상승하면서 전방참여율이 2.5%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후방참여율은 1.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산업별로 보면, 인도의 기초·가공금속(54.9%), 석탄·정제석유(50.6%), 운송기기(34.3%) 등의 후방참여율이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간재를 주력으로 수출하는 한국 입장에서 인도 시장 공략시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산업분야로 봤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도 해외 생산기지로써 인도를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협이 인도 투자 진출 기업 15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곳 중 7곳(68.1%)은 향후 5년 내 인도가 중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공장으로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기업의 74.5%는 모디 총리 3연임이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주요국의 대 인도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재생에너지·건설인프라·의약품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인도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다만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은 다소 더딘 편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그쳤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故)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원칙주의 ‘참 경영인’... 화학·전자 등 산업 중흥 이끌어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45년 동안 ‘원칙’을 지킨 경영인이 있다. 바로 ‘참 경영인’으로 불리는 고(故) 구자경 명예회장이다. 구자경 명예회장은 LG그룹 창업 초기인 1950년, 스물다섯의 나이에 모기업인 라화학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45년 동안 경영 일선에서 동분서주했다. 그는 첫 입사 때부터 ‘원칙 중심의 합리적 경영’을 지켰으며, 1969년 창업주 연암 구인회 회장의 타계 후 2대 회장에 오른 후에도, 은퇴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고수했다.

**구 명예회장, 원칙 바탕 합리적 경영
책임기간 LG그룹 매출 1150배 성장
인재 중시... ‘강토소국 기술대국’ 도모**

구 명예회장의 원칙 중심 경영은 스스로 만든 신념이 바탕이 됐다. 그는 사람을 중시하는 ‘인화(人和)’의 경영 철학을 가지고 ‘강토소국 기술대국(疆土小國 技術大國)’의 신념으로 기술 입국을 도모했다. 이를 엿볼 수 있는 어록은 셀 수 없이 많다. 그 중 1988년

인화원 개원식에서의 개원사가 있다.

“기업은 인재의 힘으로 경쟁하고 인재와 함께 성장합니다. 기업의 궁극적 목표인 인류의 번영과 복지도 인재의 빛나는 창의와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만 이룩될 수 있어요. 인재 육성은 기업의 기본 사명이자 전략이요, 사회적 책임입니다.”

사람을 중요시하는 만큼 구 명예회장은 인재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부친인 구인회 창업주의 사업을 돕기 전, 그는 진주사범학교를 마치고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교사로 근무한 독특한 이력이 있다. 그런 만큼 그의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과 원칙은 확고했다. 2012년에는 “인재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푹 떨어지는 것도 아니며,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히 육성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많은 노력을 들여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인재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 명예회장은 원칙을 중심으로 한 경영,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경영이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 그의 회장 재임 동안 LG그룹은 매출이 260억 원에서 30조 원대로 약 1,150배 성장했고, 임직원 수는 2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증가했다. 주력 사업인 화학과 전자 부문은 부품 소재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며 지금의 LG그룹 모습을 갖추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구자경 명예회장은 인화와 함께 ‘강토소국 기술대국’의 신념을 이루는 데에 골몰했다.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제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보자는 절실한 마음과 함께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자가 많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LG화학의 토대가 된 ‘락키크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직접 플라스틱 뚜껑 등을 연구했던 만큼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같은 세대의 많은 경영인들이 사업보국을 외칠 때,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회장 재임 중 ‘연구개발의 해’, ‘기술 선진’, ‘연구개발 체제 강화’, ‘선진 수준 기술개발’ 등을 경영 지표로 제시하며 기술 개발과 연구 활동에 아낌없이 지원했다.

1970년대 중반 문을 연 럭키 울산 공장과 여천 공장은 공장 가동 전 연구실이 만들어질 정도로 연구개발에 집중했다. 최초의 국내 민간기업 전사적 중앙연구소 설립하는 데에 이르렀고, 각 공장별 소규모 형태로 운영 중이던 연구실을 통합하고 개발용 컴퓨터, 만능 시험기, 금속 현미경, 고주파 용해로 등 첨단 장비를 설치했다. 국내외 우수 연구진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고, 파격적인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구소는 계속 추가됐다. 1979년에는 대덕연구단지 내 민간연구소 1호인 럭키중앙연구소를 출범시켜 고분자·정밀화학 분야를 집중 연구하여 플라스틱 가공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이끌었다. 1985년에는 금성정밀, 금성전기, 금성통신 등 7개사가 입주한 안양연구단지가 조성되는 등 회장 재임 기간 동안 70여 개의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제품시험연구소도 구 명예회장이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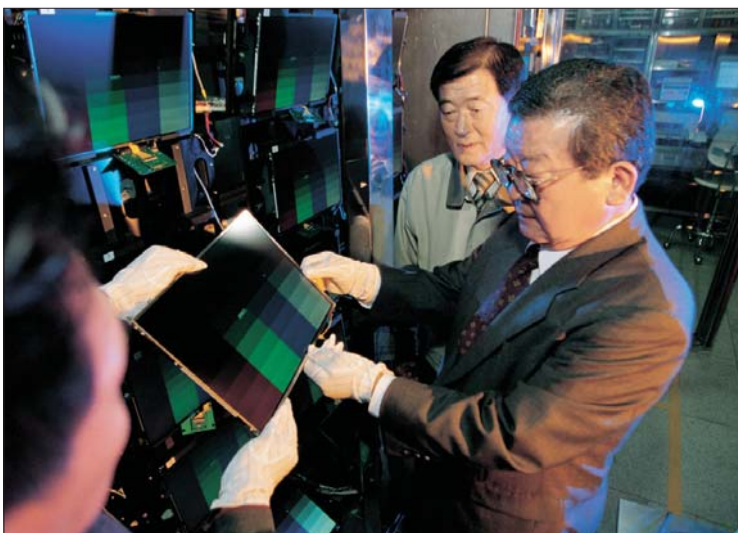
‘백색가전은 LG’라는 말은 기술 수준의 대단함과 함께 인테리어 오브제와 같은 아름다운 디자인을 함께 담고 있다. 구 명예회장은 기술개발의 영역 중 하나로 산업 디자인 분야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1974년 금성사에 디자인 연구실을 발족시키고, 전문가 육성을 위해 일본 등 디자인 선진국에 연수를 지원했다. 수치 중심으로 개선과 개발을 계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산업 디자인 또한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민생활·기업활동 선진화 추구
첨단장비 도입 등 연구개발 집중
국내 최초 제품시험연구소 설립**

구 명예회장의 이 같은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신념 뒤에는 우리 기술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업의 수준을 한층 선진화해야겠다는 비장한 사명감이 담겨 있었다.

구 명예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산기업을 시작하면서 항상 마음에 품어온 생각은 우리 국민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제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제품 국산화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선도할 것이며,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 활동의 질적인 선진화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1999년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방문한 구자경 명예회장.



1985년 금성정밀 광주공장 준공식서 공장 둘러보는 구자경 명예회장



1999년 LG화학 여수공장을 방문한 구자경 명예회장.

‘TSMC 맹추격’… 삼성, HPC·AI 생태계로 기술혁신 가속

파운드리·세이프 포럼

삼성전자가 국내외 주요 반도체 업체와 생태계 협력을 강화한다.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 추격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삼성전자가 또 2나노 기반 인공지능(AI) 가속기 반도체 첫 수주를 공식 발표했다. 향후 TSMC와 2나노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삼성 파운드리 포럼(Samsung Foundry Forum)’과 ‘세이프 포럼(SAFE) 2024’를 개최했다. 고객사에 파운드리 사업 전략과 첨단 공정 로드맵, 응용 차별 솔루션을 소개하고, 생태계 파트너사들과 함께 고객 제품 설계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공유하는 자리다. 파운드리 포럼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제조 기술 현황과 미래 비전을 팹리스 고객과 생태계 구성원들에게 공유하는 자리다.

◆“2나노 기반 AI가속기 수주”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삼성전자는 국내 팹리스 고객들과 협력을 위해 선단공정 외에도 다양한 스페셜티 공정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며 “삼성은 AI 전력효율을 높이는 BCD(Bipolar-CMOS-DMOS), 엠티 디바이스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고감도 센서 기술 등 스페



6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에서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셜티 솔루션을 융합해 나가며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국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DSP) 업체인 가온칩스와의 협력해 최첨단 공정 기반 터키 서비스를 수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프리퍼드 네트워크(PFN)에 공급할 2나노 기반 AI 가속기 반도체를 2.5차원 첨단 패키지를 통해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PFN은 일본 AI 기업으로, 딥러닝 분야에 특화해 칩부터 슈퍼컴퓨터, 생생형 AI 기반 모델까지 AI 밸류체인을 수직 통합해 첨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HPC(고성능컴퓨팅)·AI(인공지능) 분야 생태계 결집을 통해 파운드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는 현재 100개 가량의 파트너사와 생태계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이다. 반도체 생태계에는 설계자산(IP), 디자인솔루션(DSP), 전자설계자동화(EDA), 클라우드(Cloud), OSAT(조립 테스트) 등 다양한 전문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삼성전자는 반도체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한 일종의 설계도인 IP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는 시놉시스, 케이던스 등 글로벌 IP 파트너와 선제적이고

“

2나노 기반 AI 가속기 반도체 수주 BCD·엠티 디바이스 정확도 높여 고객 가장 필요한 AI 솔루션 제공 HPC·AI 통해 파운드리 강화 주력 IP파트너십 강화 반도체 혁신선도 IP 숫자, 7년 만에 5300개 성과 올해 MPW 서비스 총 횟수 32회 2025년까지 35회로 확대 계획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며, IP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가 출범한 2017년 당시 14개였던 IP 파트너는 현재 50개로 3.6배 증가했다.

현재 삼성 파운드리가 확보한 IP 숫자는 약 5300개로, 7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상가 크리슈나무티 시놉시스 EDA 그룹 총괄 매니저는 “시놉시스 AI 기반 EDA 설계 플로우와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GAA 공정에서 인증된 IP 솔루션을 사용해 차세대 고성능 칩 구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업계가 고난도·고비용 구

조의 3나노 이하 첨단 공정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 같은 생태계 업체간 협력과 기술 혁신은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으로 여겨진다.

◆첨단 반도체 생태계 확대

삼성전자는 이날 HPC와 AI 산업에 필요한 국내 첨단 반도체 생태계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파운드리는 DSP 등 협력사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밀접한 서비스를 받는 등 파운드리 이용 편의를 높여 관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특히 고객들이 최신 공정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시제품 생산을 위한 MPW(Multi Project Wafer) 서비스도 운영한다.

MPW 서비스를 활용하는 고객은 단일 웨이퍼에 여러 종류의 설계를 배치하여 테스트하는 등 제조 비용을 절감하고 더욱 완성도 높은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올해 MPW 서비스 총 횟수는 32회로 작년 대비 10%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이를 2025년까지 35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팹리스와 DSP 수요가 많은 4나노의 경우, 내년 MPW 서비스를 올해보다 1회 더 추가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반도체특별법’ 발의 野김태년 “국회, 기업 확실히 뒷받침”

K-반도체 주권 확보위한 토론회 전문가, 메모리 분야 입지 유지 의문 보조금·세제혜택·인프라 지원 필요

“국회가 기업의 노력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파격적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최하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해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파격적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전략과 지원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해당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는 모습. /김태년 민주당 의원실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반도체특별

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김태년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저와 민주당은 반도체 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를 등을 통해 100조원 규모의 효과를 거두는 정책금융 방안을 발표했다”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높이고 기간도 10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혁신을 막는 장벽도 허물겠다”며 “특히,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의원은 축사에서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세액공제를 비롯한 세제 지원과 직접 지원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서 국가의 명운을 걸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뒤쳐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은 이어지겠지만, 우리나라가 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산업연구원 김영택 성장동력본부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슈퍼 호황의 흐름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도체 호황은 수요 산업 발달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그 사이에 여러 나라 간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의 위치를 그대로 지킬 수 있느냐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보조금·세제·인프라 지원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기술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옛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반도체 경쟁국과)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땀 수밖에 없고, 기술력 또는 기업의 노력 만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수준”이라며 “보조금·세제 혜택 모두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를 종합한 실질 지원을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프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건설해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력 용수 같은 비용도 원가에 직결되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간소한 수준으로 확보 또는 유지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금리인하 신중 검토… 가계부채 등 고려”

▶▶ 1면 ‘물가 안정세 예상…’서 계속

가계부채, GDP비 93.5%로 하락 “80%까지 하락하는 방향 추진돼야”

현재 물가는 안정화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등 시장금리는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은 1380원선의 높은 수준

을 기록하고 있다. 금리인하 시 부동산 투자가 또 다시 늘고, 높은 환율로 수입 물가가 또 다시 오르는 경우를 주의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틀 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금융

통화위원회에서 물가 둔화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 하락세로 전환

이 총재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해 원만하게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명

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면서 하락세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기준을 개편한 영향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도 (하락세로) 방향의 전환이 있었다”며 “부채 비중을 반대로 바꾸는 것이 큰 스텝이었다면 이제는 바람직한 수준(80%)까지 원만하게 하락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GDP기준을 2020년으로 맞

추면서 100.4%에서 93.5%로 떨어졌다. 여기에 실제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줄면서 하락세로 전환한 만큼 DSR을 강화해 가계부채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이전에는 통제하지 못했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변화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원만하게 하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함께 미래를 생각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달라도 함께 밀고 당기며
더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를 아끼는 그린에너지,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배터리,
생명을 살리는 바이오 기술,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Si와 반도체까지

**SK와 파트너들의 원팀 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내용공개 파문 與 전대서 뒷전 된 민생·경제 이슈

김 여사, 韓에 보낸 문자 5통 공개
권성동 “진실공방 아닌 韓 사과 필요”
장동혁, 친윤계·원희룡 캠프 저격
오세훈 “대표 후보들, 정도 지켜야”

김건희 여사가 제22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터져나온 명품백 수수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사과하겠다는 담긴 문자를 보냈고, 한 전 위원장이 이에 응답하지 않아 대통령실의 격노를 불러왔다는 이른바 ‘문자 논란’ 사건이 진화되기는 커녕 실제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더 커지는 분위기다.

TV조선은 전날(8일) 김 여사가 올해 1월15일에서 1월25일까지 한 전 위원장에게 보냈다는 문자 5통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한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 의사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총선 참패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는데, 공개된 문자 내용은 친윤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김건희 여사는 1월15일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1월19일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고 문자를 재차 보냈다.

1월23일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1월25일엔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참 상하셨을 것 같고 생각합니다”고 보냈으나, 한 전 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미국 하급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뉴스1

장은 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1월29일 윤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졌다.

한 전 위원장 측은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사과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를 갖고 자신을 공격하는 친윤계가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엇보다 전당대회가 정상 궤도로 수정되기 위해서는, 문자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니라 한 후보의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 후보 측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 사과의 진정성 여부와 공산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 정치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

이고, 그 결과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비대위원장은 모든 것을 시도했어야 했다”며 “한 후보는 당시 판단 착오를 인정하고 이것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사과하지 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장동혁 최고위원 후보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자 논란 사건에 대해 “지금 언론의 보도나 여러 거론되고 있는 분들의 실명, 특정 캠프의 대변인이나 와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떤 분들이 뒤에 있는지도 국민들께서는 예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논란을 확산시키는 배후에 친윤석열계와 원희룡 캠프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권 레이스가 분열 양상을 보이는 것에 경고하며 후보들이 수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지만, 이미 전대 레이스에서 민생·경제 이슈몰이는 후순위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신의 SNS에 “총선 패배에 이어 전당대회까지, 집권 여당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당대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으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대표 후보들은 정도(正道)를 지키면서 각자의 미래 비전과 품격으로 승부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백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
野, 사망 1주기 전 재의결 추진 방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됐다.

당초 8~11일 미국 방문 일정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상보다 이르게 거부권을 조기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채상병 사망 1주기 전에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1주기와 맞물려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이 탈하면 재표결 통과 요건(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을 채울 수 있다. /서예진 기자 syj@

국민통합위 “또래갈등, 사법 의존도 낮춰야”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
단순 또래갈등, 학교 현장서 해결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 문제에 대해 ‘교육친화적 또래갈등 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뢰성 제고’ 등을 통해 사법 의존도를 낮춰갈 것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사회·문화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민통합위는 “또래간 경미한 다툼마저 처벌과 불이익 우려로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통합위는 경미한 또래갈등의 경우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통합위는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폭위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달라”고 했다.

또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학폭위에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을 확충하고 심의 절차·기준 교육을 강화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법사위,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안건 의결

증인·참고인에 김건희 여사 등 포함
與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 해당
청원 통한 탄핵, 원천적으로 불가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후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차례대로 의결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김건희 여사, 최은순(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씨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여당은 안건 상정 전에 여당 측 간사 선임의 건을 제일 먼저 처리한 뒤, 이후의 청원 상정과 청문회 관련 안건을 여야 합의로 원만히 처리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규택(왼쪽), 유상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의사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국회법은 상임위에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는데, 민주당은 탄핵 청원이 중요한 안건에 해당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법사위가 안건 처리를 강행하자 퇴장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고 온갖 증인을 불러세울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참 비겁하고 무도한 시도”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따라서, 청원을 통한 탄핵소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법률적 지위도 단순 미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백태홍 기자

與, 김영란법 식사비·농축수산물 상향 요청

식사비 5만원, 농축수산물 최대 30만원

국민의힘이 9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묶여 있는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소비 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영업활동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내지 30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청탁금지법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과도한 규제로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2016년 시행 당시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 강령 기준에 따랐다”며 “20년 넘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이 그간 우리 사회 청렴 발전에 기여한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시대와 요건에 맞는 정비로 규범의 이행력을 높이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각종 단체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선물 가액 상향에 대해서 “20만~30만원 사이 적정 수준을 관계 기관과 함께 정부가 판단해주십사 범위를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백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원리금보장 많은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 저조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액 382조 DC형 18.1%. IRP 31.2% 증가

원리금비보장 상품 비중 적어 10년 장기 수익률 연 2.07% 불과

노후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액이 원리금보장 상품에 집중됐기 때문이란 진단이 나온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전년 대비 46조5000억원(13.8%) 늘어난 3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가입자가 직접 투자 운용이 가능한 DC형(18.1%)과 개인형 IRP(31.2%)의 적립액 성장률이 DB형(6.7%)보다 적립액 성장률이 가팔랐다.

같은 기간 연간 수익률은 전년보다 0.02%포인트(p) 상승한 연 5.26%를 기록했다. 하지만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저조했다. 5년 수익률은 연 2.35%, 10년 수익률은 연 2.07%에 머물렀다.

◆ 원리금보장 비중 74.8%

국내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이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는 적립금 규모 대비 높은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원리금보장 상품은 예금, 국채 등 초



퇴직연금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5년, 10년 장기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저위험 상품에 투자한다. 원금 손실 위험은 없지만, 평균 수익률이 연 2%에 그쳐 증시·펀드 등에 투자하는 원리금비보장 상품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다.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전체 적립금 규모 대비 원리금보장 상품 선택률(DC형 78.7%, IRP 70.2%)은 74.8%에 달한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퇴직연금 가입 시 운용 방법을 미리 지정하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했지만, 지난해 디폴트옵션의 90%는 원리금보장 상품에 투자됐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과도하게 낮고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도

저조해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노후 소득원'이라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원석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학술지 '보험금융연구'에서 현행 퇴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을 2.7%로 제시했다. 보험연구원도 지난해 현행 퇴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로 2.1%를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는 낮은 이직과 낮은 수익률에 따른 높은 중도 해지율과 이에 따른 최종 적립액 감소를 꼽았다.

지난해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자의 89.6%는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급하는 대신 일시 출금했다. 평균 수령

액도 1645만원에 그쳤다.

한국연금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퇴직연금 동시 가입자의 49.9%는 퇴직연금 일시 출금 요인으로 '적립금이 적어 노후 소득 보장의 실효성이 없다'를 꼽았다.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대

일각에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을 위해선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장기 수익률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원리금비보장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DC형이 연 12%, IRP가 연 12.6%에 달했다. 그러나 5년 수익률은 DC형이 연 4%, IRP가 연 4.0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원리금보장 상품 수익률(DC형 연 2.26%, IPR 연 1.96%)과의 차이는 2%p 안팎에 불과했고, 5년 수익률에서 연 10.1%(2016~2020년)를 기록한 미국, 연 7.42%(2019~2023년)를 기록한 호주 등 원리금비보장 상품 비중이 큰 국가의 퇴직연금 수익률과 비교해도 크게 낮았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과 낮은 연금화가 지속되면 퇴직 소득 안정화라는 제도의 기본 취지가 악화될 수 있다"며 "적어도 임금상승률에 상응하는 투자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연금화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카드 News

롯데카드 물놀이장·항공권 등 휴가철 맞아 할인혜택

롯데카드가 물놀이장 및 해외 항공권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 항공권 최대 20% 절약

롯데카드는 여름을 맞아 가맹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롯데워터파크 김해에서 본인 입장권 50%, 동반 3인까지 40% 할인한다. 전월실적 20만 원을 충족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는 인터파크 트리플에서 해외항공권을 구매하면 최대 20%를 아낄 수 있다. 이어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웹투어 ▲투어비스 등에서는 할인율을 15%로 책정했다. 모두 투어에서 여행 행사 상품을 150만원 이상 결제하면 5만 원을 할인한다. 마이리얼트립에서 1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만2000원, 트리플에서는 최대 2만5000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자동납부 신규고객 캐시백·경품 증정

KB국민카드가 자동 납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및 경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 관리비 월 최대 30만원 캐시백

KB국민카드는 생활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리비 자동 납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아파트·오피스텔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자동 납부 등록하면 시 각각 5000원을 돌려준다. 단 지난 1월 이후 관리비, 전기요금 항목의 자동 납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내달 31일까지 자동 납부 신규 등록 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를 캐시백한다. 대상은 아파트 관리비 또는 전기요금 중 한 개 이상을 신규 등록하고 3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이다.

NH농협카드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

NH농협카드가 제철 음식 및 우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 신선식품 및 편의점서 할인

NH농협카드는 7월을 맞아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메프에서 진행하는 '농협 브랜드 신선식품 프로모션'을 통해 농축협 상품을 최대 20% 할인한다. 이어 티몬에서는 '농협 신선식품 산지직송' 행사를 진행한다.

편의점에서도 즉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25 샌드위치(30%) ▲CU 국가대표 간편식 시리즈(30%) ▲이마트24 편승량 상품(30%) ▲세븐일레븐 맥주 행사상품(20%) 순이다.

'더위극복 응모 이벤트'도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LG 휘센 오보제컬렉션 제습기 ▲설화수 상백선 크림세트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등을 증정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디에이치클래스트 입주 후 반포권역 위상 정점 이룰 것”

NH투자증권, 반포아파트 심층분석 실수요 위주 가장 특색한 한채 주목 원펜타스·메이플·트리니티 등 대기

국내 아파트 최고가의 시세를 이끌고 있는 서울 반포의 위상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각종 규제에 '뚝뚝한 한채'에서 '가장 특색한 한채'로 이동하고 있는 데다 한강변에 대한 선호도 더 커지면서다.

NH투자증권이 최근 내놓은 '반포아파트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래미안 원펜타스'를 비롯해 '메이플자이'와 '래미안 트리니티' 등 신축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디에이치클래스트' 입주로 반포권역의 위상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서초구 반포동과 잠원동을 아우르는 반포권역은 한강을 접하고 있으며, 한

강 이남권에서도 서울 중앙에 위치했다. 경부간선도로가 지나고 서울고속터미널이 있으며, 지하철 3·7·9호선이 용이 가능해 광역교통과 시내교통 모두 좋다. 초중고를 비롯해 주변 학원까지 발달된 대표 강남 8학군 지역이다. 의료와 체육 등 생활편의시설뿐 아니라 백화점 매출 규모 1위의 신세계 강남점 있어 주거 환경이 좋다.

강남 개발 이후 반포가 다시 주목을 받은 것은 2000년대 후반 반포주공2단지 3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각각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로 거듭나면서다. 한강변에 신반포1차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가 들어서며 국내 최고가 아파트촌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으며, '래미안원베일리' 입주로 반포의 위상이 공고해졌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

구원은 "실수요 시장이 계속될수록 '가장 특색한 한채'로 주거상향 이동 움직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아파트 최상급지로서 시장을 국지화하며 반포권역의 진입수요는 꾸준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반포동 한강변 신축 단지의 가격 흐름이 시차를 두고 잠원동 일대와 구축, 학원가 인근, 서초, 방배 일대로 남진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입주 이후 반포권역의 입지적 위상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기준 실거래 가격은 반포동이 3.3㎡당 8556만원, 잠원동은 7554만원이다.

전용 84㎡ 기준으로 현재까지 최고가는 아크로리버파크로 2022년 1월에 46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최근 거래

가는 작년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가 42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다.

잠원동에서는 한강변 입지의 아크로리버파크가 지난 4월 40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근 최고가를 기록했다. 재건축 아파트 가운데서는 신반포4차가 32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향후 가격 변수는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체나 압구정 재건축 사업의 추이 등이다. 압구정 및 청담, 삼성, 대치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경우 반포 진입이 가능한 유효 수요가 강남으로 분산될 수 있다.

정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단지만 모여 있는 압구정동 시세가 반포 신축과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압구정 재건축 사업의 주후 진행 속도에 따라 시세 형성의 동인이 압구정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銀, 대우건설과 클린페이 도입 협약

클린페이 영역 민간기업으로 확장 하도급 구조 공정문화 조성 앞장

신한은행이 대우건설과 '클린페이' 도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페이컴즈가 공동개발한

'클린페이'는 건설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특수목적 자금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클린페이' 도입 관련 협약을 통해 대우건설은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협력 업체들의 안정적

인 사업 수행을 돕는다.

정상혁 은행장은 "대우건설과의 이번 협약으로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클린페이'의 영역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금융 솔루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왼쪽)이 대우건설 백정환 대표이사(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석화업계, 업황개선 기대감... 중동發 공급경쟁 막판 변수

석화기업 2분기 실적 개선 전망
중동권 120조대 설비 구축 나서
업계 “친환경·고부가 전략 관건”



LG화학 여수 CNT 1·2·3공장 전경

/LG화학

국내 석화업계가 2분기 실적 반등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동의 석화산업 진출이 최근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석화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석화 업계는 범용 제품의 중국발 공급과잉 지속으로 긴 침체를 겪어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LG화학의 영업이익이 1분기 2646억원에서 2분기 47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금호석유화학 역시 781억원에서 851억원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분기 영업손실 2166억원을 기록한 한화솔루션은 2분기 561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폭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도 1353억원에서

477억원으로 영업손실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발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동의 석유화학 산업 진출 소식까지 들리며 근심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중동은 120조원을 들여 8개의 정유·석화·통합공장(COTC)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부터 일부 가동 중인 쿠웨이트 국영석유화학회사(KIPIC) 공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동의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가 과제가 되면서, 기존 원유 수출만으로는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산유국들이 일제히 도입 중인 COTC 공정은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한 뒤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기존 공정과 달리, 원유에서 곧바로 기초유분을 제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밸류체인 창출하고 수익성 극대화를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COTC를 통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기초유분 생산 비용을 30%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OCTC 공정을 통해 원유에서 기초유분을 생산할 경우 비율이 기존 공법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중동산 석화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품질과 가격 면에서 국내 석화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업계는 신기술 개발 및 신사업 위주 체질 개선을 통해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전환해 고비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직접 조달하는 중동은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며 “중국에 이어 경쟁국이 될 중동과의 싸움에서 국내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내세워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환경’, ‘고부가’ 소재 개발 및 판로 개

척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소재 개발은 탈탄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중국 및 중동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다.

LG화학은 태양광 패널 필름용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와 고무의 제품인 이소프로필 알코올(IPA) 등을 신규 양산 가능하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2100억원을 투자해 2차전지 소재인 전해액의 생산라인을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 준공했고 14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유사 유기용매 생산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고순도 절연 제품인 해저케이블용 XLPE(가교 폴리에틸렌) 등 신제품을 순차 출시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차에 적합한 타이어 소재 SBR(합성고무)의 생산 능력을 늘렸고 재활용 소재를 투입한 친환경 제품 생산도 준비 중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국내 최초

효성重, 200MW급 직류송전 기술 개발

양주변전소에 HVDC 설비 준공
우태희 대표 “글로벌 시장 개척”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가 한전 양주변전소에서 열린 200MW 전압형 HVDC 구축 기념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효성

효성중공업이 국내 최초로 200MW(메가와트)급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효성중공업과 한국전력공사는 경기도 양주변전소에서 200MW 규모의 전압형 HVDC 변환설비 구축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HVDC는 HVAC(초고압교류송전) 대비 먼 거리까지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며 송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다.

전압형 HVDC는 전류형 HVDC 대비 실시간 양방향 전력 제어가 자유롭고 계통안정화에도 유리해 재생에너지 연계가 가능하다. 태양광, 풍력발전 등 산지 및 해안가에서 생성한 신재생 에너지를 도심까지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한전 양주변전소에 설치한 200MW급 전압형 HVDC 변환설비는 경기도 북부 지역 계통 안정화를 위해 사용된다. 200MW는 일반 가정집 48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규모다.

20MW 전압형 HVDC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은 200MW 전압형 HVDC 개발 성공에 이어, GW(기가와트)급 대용량 전압형 HVDC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전력그리드의 대규모, 대용량화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GW급 HVDC 변환설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HVDC 개발은 그동안 글로벌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던 국내 HVDC 시장과 글로벌 HVDC 시장 진출의 기술적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글로벌 HVDC 연간 시장규모는 13조원이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효성중공업이 독자기술로 전압형 HVDC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스테콤, ESS 등을 개발하며 차세대 전력 시장 개척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라며 “재생에너지 등 미래 송배전 시장의 핵심기술인 HVDC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력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인터, 광양 1터미널 종합 준공

20년간 1조450억 투자
93만kℓ 저장용량 확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 제1LNG터미널 전경.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02년 광양 제1LNG터미널(광양1터미널)의 첫 삽을 뜨지 20여년 만에 종합준공했다. 투자비용만 1조원 규모에 달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9일 전남 광양에 민간 첫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을 종합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탐사부터 생산, 저장, 발전에 이르기까지 LNG 전 밸류체인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05년 탱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후 약 20년간 총 1조450억원을 투자했다. 이번 준공을 통해 광양1터미널은 1~6호기 저장탱크를 기반으로 총 93만 킬로리터(kℓ)의 LNG 저장 용량과 더불어 18만㎡급 항만설비를 갖추게 됐다.

광양1터미널은 국가 기간산업을 위해 발전용과 공정용 천연가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포스코, S-OIL, SK E&

S 등 이용사가 직도입한 천연가스를 하역, 저장, 기화, 송출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터미널을 주축으로 LNG 밸류체인 중류에 해당하는 미드스트림(액화, 운송, 저장, 트레이딩) 영역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앞으로 광양 LNG터미널의 운영 관리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국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2024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장재훈 사장 “ESG 경영 내재화”

현대자동차가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24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2024 현대차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크게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세

파트로 구성됐다.

환경 파트에서는 기후변화, 순환경제, 생물다양성 등 회사의 경영 활동과 밀접한 환경 관련 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사회 파트에는 임직원,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주요 콘텐츠가 게재됐다.

지배구조 파트는 이사회 책임 경

영, 윤리·준법 경영, 리스크 경영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핵심 항목들로 구성됐다.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현대차는 점차 높아지는 ESG 경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보다 공고히 다지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길 수 있도록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시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S에코에너지, 美 UL 안전인증 획득

지중 전력 케이블 라인업 확장

LS에코에너지가 LS전선의 미국 법인 LSCUS와 함께 발전소 건설업체와 전력청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본격 진행하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S에코에너지는 미국의 안전인증 기구인 UL로부터 지중(URD) 전력 케이블의 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LS에코에너지는 기

존의 랜(UTP) 케이블에 더해 미국 수출 제품의 라인업을 확장하게 됐다.

회사 측은 베트남 LS-VINA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의 혜택도 기대하고 있다.

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는 “이번 인증이 미국 시장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파업 없이 임단협 잠정합의 車업계 올해도 무분규 기대감 높아

기본급 인상·성과급 잠정 합의
파업 철회, 6년연속 무분규 기대
르노·KG모빌리티, 무분규 가능성
한국지엠, 임금 상향에 난항 예상



임금협상 상건례 갖는 현대차 노사.

현대자동차 노사가 2024년 임금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단협 난항으로 10일과 11일 부분 파업을 예고했지만 잠정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하면서 6년 연속 무분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8일 오후 울산공장 야반테움에서 열린 12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2000원(+컨베이어수당) 등을 골자로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본급의 400%와 1000만원에 해당하는 2024년 경영성과급, 2년 연속 최대 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명목의 기본급 100%와 28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이 포함돼 있다.

이와 별도로 올해 9월 말에는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으로 500만원과 현대차 주식 20주를 지급한다. 임금협상 외 별도 요구안에 대한 잠정 합의도 이뤄졌다. 양측은 현장직들에게 지급되는 '컨베이어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호봉제 폐지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래변화대응 TFT'를 통해 10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의 요구가 강했던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정년 관련 노사 TFT'를 구성해 대외 정년 연장 제도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2025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이번 임금협상을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4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10일과 11일 각각 4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만약 이날 협상이 불발되면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아는 물론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파업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날 현대차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파업 분위기는 한풀 꺾였다.

완성차 업계 만행적인 현대차 노조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교섭에 돌입했다. 기아 노사는 지난 2일 상건례를 마쳤으며 매주 3회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년 현대차와 비슷한 요구안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모비스 노조도 10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현대차의 움직임에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모비스 노조는 현대차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기본급 15만9800원 정액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 현대차 노조와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오는 11일 본교섭에 돌입하는 르노 코리아도 올 하반기 신차 출시를 앞둔 만큼 무분규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무분규 기록을 이어온 KG모빌리티도 침체된 내수 판매 등 분위기 반전을 위해 원만한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지엠은 올해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로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만큼 노조는 기본급 상향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일 파업권을 획득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 한국지엠 노조는 올해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15% 성과급 지급 ▲통상급 300%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항 설명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 영상 제공



HMM, 한국행 美 오렌지 운송 2년간 1위

캘리포니아산 韓 수입량 33% 운송



HMM의 리퍼 컨테이너를 통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운송되고 있다.

HMM이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가장 많이 운송한 선사로 나타났다.

미국 JOC '피어스 데이터'에 따르면 HMM은 2024년 한국행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중 총 2982TEU(시장점유율 33%)를 운송해 지난해(2380TEU, 25%)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오렌지는 대부분 캘리포니아산으로 매년 1~4월 사이에 운송된다.

오렌지는 냉동·냉장이 가능한 '리퍼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화물로, 선사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한 품목이다. 특히 태평양을 건너는 장기 운송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운송능력이 필수적이다.

HMM은 전 세계 일부 선사만 운영

하는 '울트라 프리저(Ultra Freezer, 영하 60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등 최고 수준의 운송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HMM은 화주들의 운송정보제공 요청에 맞춰 일부 리퍼 컨테이너에 IoT 장비를 부착하고 올해 6월부터 한국, 미국, 멕시코, 칠레, 페루 등 7개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2000만원대 전기차로 반등 노린다

'캐스퍼 일렉트릭' 공개 사전예약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 시장 분위기 반등을 위해 2000만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전기차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지난해보다 국산 전기차 판매가 30%가량 감소하는 등 판매 부진이 장기화되자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 모델로 반등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대중화'를 목표로 다양한 차량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2000만원 초중반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기존에 가장 저렴한 전기차 모델인 레이 EV보다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캐스퍼 일렉트릭 인스퍼레이션 모델

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3150만원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판매 가격이 2990만 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2000만 원 초중반대의 금액으로 인스퍼레이션 모델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픽셀 그래픽을 적용한 다부진 디자인, 여유로운 도심 주행이 가능한 315km의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차급을 뛰어넘는 다양한 편의·안전 사양으로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진정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독보적인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캐스퍼 일렉트릭을 준비했다"며 "캐스퍼 일렉트릭은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는 많은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이자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국제선 운항 지연률, 국내선보다 낮아

최근 1년간 국제선 시간준수율 81%
올해 1분기, 국내선 75%·국제선 77%
1~5월 통계 기준 에어서울 가장 낮아

국적 항공사 이용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운항 지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국제선 시간준수율이 국내선보다 높게 나왔다. 지난 2023년 2분기 국내선 시간준수율은 76.4%인 반면 국제선은 81.1%였다. 3분기에도 국내선은 74.2%였으나 국제선은 78.4%로 국내선보다 높았다.

4분기에는 국내선 73.6%, 국제선 74.7%로 격차가 좁혀졌지만 여전히 국제선의 시간준수율이 높았다.

2024년 1분기에는 국내선 74.9%, 국제선 77.4%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올해 5월 통계에선 국내선 시간준수율이 81.7%로 국제선 79.6%를 앞섰다. 국내선 지연율이 17.7%를 기록한 반면, 국제선 지연율은 20.4%를 기록했다

00	GWANGJU	t'way	TW 903	
05	13:30	YEOSU	0Z 8197	DELAYE
10		제주항공	7C 113	DELAYE
10	13:59	KOREAN AIR	KE 1097	DELAYE
15	13:26	0Z 8143	ARRIVE	
20	13:48	t'way	TW 9873	
25	14:04	제주항공	7C 509	DELAYE
25		제주항공	7C 115	DELAYE

항공기 지연 소식을 바라보는 여행객.

/뉴시스

다. 하지만 국내선 결항률은 0.67%로 국제선 결항률 0.11%에 비해 높게 나왔다.

2024년 1월~5월 통계를 기준으로 시간준수율이 가장 낮은 국적 항공사는 에어서울이다. 에어서울의 지연율은 지난 ▲1월 56% ▲2월 58.7% ▲3월 51.4% ▲4월 34.9% ▲5월 60%였다. 시간준수율이 높은 일부 항공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날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의 지연율 및 결항률이 차이를 보이기도 했

다. 지난 2023년 5월 국내선의 지연율은 24.9%, 결항률은 2.07%였다. 반면 국제선은 지연율 15.7%, 결항률 0.26%였다.

2023년 5월 제주도는 800mm가 넘는 폭우와 초속 22m가 넘는 강풍이 찾아왔다. 제주공항이 마비돼 수백 편의 항공기가 운항을 못 했다. 국내 노선 중 제주 노선의 비중이 큰 만큼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백대성 수습기자 iunmids@

HD한국조선해양, 맞춤형 'AI 번역 기술'

'AI Agent' 선박건조 현장 적용

HD한국조선해양이 맞춤형 'AI 번역 기술'을 개발해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을 돕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번역 서비스 'AI Agent'의 1단계 개발을 완료하고, 전남 영암에 위치한 HD현대삼호의 선박 건조 현장에 실제 적용했다고 9일 밝혔다.

'AI Agent'는 조선소 내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효율 및 숙련도 향상을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이 자체 개발한 번역 서비스로, 실제 선박 건조 현장에 최적화해 조선업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기존에 사용되던 범용 번역 서비스들이 조선소 현장에서 통용되는 전문 용어나 방언 등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못했고, 외국인 근로자별로 사용하는 언어

가 달라 매년 설정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D한국조선해양은 현장 및 국가 표준 조선 용어 1만 3000개와 선박 건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4200개의 작업 지시 문장을 수집,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학습시킴으로써 조선업 맞춤형 번역 서비스를 개발했다.

'AI Agent'는 채팅앱, 챗봇 서버, 번역 모듈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작업자가 채팅앱에 대화 내용을 입력하면 챗봇 서버를 통해 메시지가 번역 모듈로 전달돼 자동 번역 후 채팅앱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실제 HD현대삼호의 경우 자체 업무용 채팅앱인 '팀업'과 연동, 채팅창에 입력한 내용을 근로자가 설정한 언어로 자동 번역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양성운 기자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 연구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CFD 회복세에 수수료 인하·주간거래 서비스 확대

(차액결제거래)

CFD 명목 잔액 1조2192억
역대 최저치비 20%가량 늘어

유안타증권, 온라인수수료 0.10%
하이투자증권, 美 주식 CFD 개시
메리츠증권, 美 주간거래 운영·확대

금융 당국이 투자자 요건과 정보 투명성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침체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자, 일부 증권사들이 주간거래, 수수료 인하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액은 1조2192억원이다. 이는 라덕연 사태 발생 이전인 지난해 3월(2조7697억원)에 비해 56% 넘게 감소한 수준이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5월(1조169억원) 대비 20%가량 증가하면서 감소세가 멈춘 것으로 평가된다.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 가격변동 위험에 투자해 차액을



여의도 증권가 야경.

/유투이미지

얻을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40%의 증거금으로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규제 강화에도 절세 효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액자산가 등을 중심으로 CFD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최근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대금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현행법상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9.5%의 세율이 적용된 반면 CFD는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갖는 만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내면 된다. 또한 CFD는 종합소득세 대상 및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해

외 주식에 직접 투자 시 22%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CFD 계좌를 통하면 11%의 세율이 적용된다.

CFD는 매수(Long)와 매도(Short)의 양방향 투자도 가능하다. 주가 상승뿐만 아니라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매도 포지션도 취할 수 있어 공매도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단 국내 CFD의 경우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2025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매도포지션이 제한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CFD 시장은 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면서 “국내와 해외 증시가 최근 상승하는 등 지수가 올라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거래대금도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액자산가들이 CFD 상황이 안 좋을 때 많이 이탈했으나 최근에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CFD가 살아나기 시작하자 일부 증권사들은 관련 서비스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7일 국내·해외주식 CFD 온라인 매매수수료를 0.15%에서 0.10%로 인하했다. 지난해 국내 주식 CFD를 도입한 하이투자증권은 CFD 서비스 범위의 확대 차원에서 미국주식 CFD 서비스를 개시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정규 시간에 S&P500, 나스닥 100, 다우 30의 구성 종목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리츠증권도 지난해 미국 주간거래 서비스를 운영, 확대에 나섰다. 증거금률이 100%인 미국 CFD 안심계좌에 한정해 한국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거래할 수 있게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CFD에 대한 투자심리가 바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공매도 금지로 매도 포지션이 안 되는 상황으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매도 포지션도 가능한 만큼 CFD 시장이 더 활성화돼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TDF 10兆 시대... 자산운용사 '몸집 불리기'

(타깃데이트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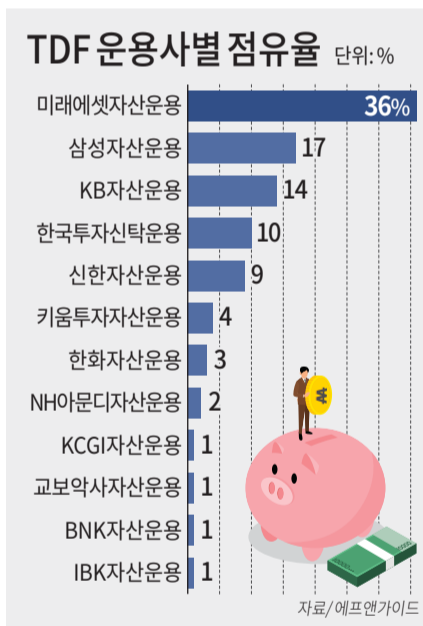
시장 설정액, 이달 기준 9조7722억
미래에셋운용, 점유율 36% '1위'
은퇴 시점 따라 수익률 1위 천차만별

은퇴시기에 맞춘 노후준비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타깃데이트펀드(Target Date Fund, TD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도 TDF 수익률이나 TDF 점유율의 규모 순위를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8조4028억원을 기록한 '국내 TDF 시장 설정액(수탁고)'은 현재 9조7722억원으로 증가했다.

TDF는 디폴트옵션 선택지에 작년 7월 12일부터 포함되며 자산운용사들과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시 은행,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TDF'는 펀드 매니저가 근로자의 은퇴 날짜에 맞춰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펀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TDF의 성장세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을 통한 자금 유입이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게 작



용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들은 TDF 점유율을 두고 경쟁 중이다. 9일 설정액 기준으로 TDF 운용사별 점유율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36%를 차지하며 1위를 고수했다. 뒤이어 ▲삼성자산운용 17% ▲KB자산운용 14% ▲한국투자신탁운용 10% ▲신한자산운용 9% ▲키움투자자산운용 4% ▲한화자산운용 3% ▲NH아문디자산운용 2%로 점유율을 차지했다. KCGI·교보약사·BNK·IBK자산운용 등은 1%대 점유율을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TDF 점유율 부분에서는 KB자산운용의 약진이 돋보인다. 빠르게 TDF 순자산을 늘린 KB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을 제치고 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

점유율로 보면 상위 5개 순위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맞붙고 있지만, 투자자의 은퇴 시점(벤티지)에 따라 1위 자산운용사는 천차만별이었다. 2025년 벤티지에서는 'NH-Amundi하나로TDF'가, 2030·2040·2045년 벤티지에서는 'KCGI프리덤TDF'가, 2035년 벤티지에서는 '미래에셋우리아이TDF'가, 2050년 벤티지에서는 '마이다스기본TDF'가, 2055년 벤티지에서는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가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TDF 수익률 평균으로는 '미래에셋우리아이TDF'가 15.64%, '한국투자TDF알아서ETF포커스' 14.93%로 각각 1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운용사 점유율에 비해 선전한 TDF는 'KCGI프리덤TDF'(14.59%)과 '마이다스기본TDF'(15.20%)이 두각을 나타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디폴트옵션 가입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의 TDF 판매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엑스, 총 운용자산 500억달러 돌파

(미래에셋운용 美 ETF 운용 회사)

올해 하반기에 70억달러 이상 증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ETF 운용 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의 총 운용자산(AUM)이 5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엑스는 8일 기준 미국 현지에서 93개의 ETF를 운용하고 있다. 총 운용자산은 503억달러(원화 기준 69조 6000억원)로, 미국 현지 ETF 운용사 중 13위다.

글로벌엑스는 2018년 미래에셋그룹 박원주 회장(GSO)이 인수한 미국 ETF 운용사다. 인수 당시 1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운용자산은 2020년말 209억달러, 2023년말 425억달러로 증가했다. 올 들어 6개월여만에 70억달러 이상 증가해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엑스는 2008년 설립됐으며 초기부터 차별화된 상품들을 선보여 미국 현지 투자자들에게 '혁신적 ETF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인공지능과 인프라 개발 등 혁신 선도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상품과 커버드콜 전략으로 대표되는 인컴형 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Global X Nasdaq 100 Covered Call(QYLD US)'는 순자산 약 83억 달러의 미국 대표 커버드콜 ETF다. 'QYLD' 등 글로벌엑스의 커버드콜 ETF 시리즈는 16개, 총 순자산 규모 129억달러에 달한다. 'Global X U.S. Infrastructure Development(PAVE US)'는 미국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원자재, 중장비, 건설업, 디지털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엑스의 대표 테마형 ETF로,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순자산 약 73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한편,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 ETF 총 순자산은 6월말 기준 1270억달러(175조원)다. 이는 현재 국내 전체 ETF 시장(156조원)보다 큰 규모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

오는 12일~16일 청약 가능
이달 발행한도 총 2000억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 국채 두 번째 판매를 시작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출시됐으며 지난 달

첫 판매에 이어 이달 12일 두번째 판매를 앞두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전 금융권 단독 판매 대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발행된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 발행한도는 1조원이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7월 청약일은 12일부터 16일까지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7월 발행한도는 총 2000억원으로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다. 표면금리(세전)는 10년물 3.275%, 20년물 3.22%로 가산금리(세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각 0.15%, 0.3%를 적용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테슬라 보관액, 직전 달비 41.38% 늘어

해외주식 Click

주가 급등에 엔비디아 제치고 1위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보관액이 직전 달보다 약 41% 가량 늘어났다. 이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인을 향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반응했다.

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관금액은 149억7094만달러(약 20조 7093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이었던 지난달 5일(105억8856만달러)보다 약 41.38% 급증한 규모이다. 당시에

는 주가 상승 랠리를 펼치던 엔비디아의 보관액이 1위를 유지했지만, 현재는 테슬라로 뒤바뀐 상황이다.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서학개미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에 저가 매수로 인식한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사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자 서학개미들의 보관액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8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인 '테슬라코노믹스'는 “테슬라는 한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위”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인 투자자들에게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신하은 기자

모바일게임 매출 1위 '中 기업' 상위 10개 중 5개 외산이 차지

상반기 국내 모바일게임 결산

'버섯키 키우기' 세계매출 3.5억 弗 한국시장 매출 34%, 비중 가장 커 퍼블리셔 매출 1위는 엔씨소프트

올해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 10개 게임 중 외산 게임이 5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글로벌 앱마켓 분석업체 센서타워는 '2024년 상반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결산 보고서'를 통해 중국게임사 퍼스트펀이서비스하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 게임이 국내 모바일게임 매출 순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조이넷게임즈의 '버섯키 키우기'가 3위, 센추리 게임즈의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이 5위, 슈퍼셀의 '브롤스타즈'가 7위, 드립 게임즈의 '로얄매치'가 8위를 차지하며 총 5종의 게임이 매출 순위 톱 10에 들었다.

외산 게임이 매출 순위에 5개 이상 오른 것은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버섯키 키우기의 경우 전체 매출 3억5000만달러(약 4800억원) 중 한국 시장 매출이 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센서타워는 '라스트 워'가 출시 이후 전 세계적으로 6억 달러(약 8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한국 시장 매출 비중은 26%로 미국(30%) 다음으로 많았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브롤스타즈'가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며 올해 상반기 한국 시장 모바일 게임 중 매출 성장 3위와 매출 7위를 달성한 것은 기존 플레이어를 유지하면서 신규 플레이어를 지속적으로 유치한 결과다.

센서타워 소비자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체 플레이어 중 신규 플레이어 비율은 약 22%로, 이는 출시 후 가장 높은 비율이었는데, 2024년 2월과 3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같은 성적은 퍼블리셔별 매출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외 퍼블리셔 5곳이 매출 상위 10위권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 역시 지난 10년간 상반기, 하반기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 퍼블리셔 매출 순위 1위는 엔씨소프트(리니지M)가, 4위에는 넷마블(나혼자만 레벨업:어라이

즈)이 자리를 유지했다. '넷마블'은 지난해 블레이드&소울레볼루션으로 매출 4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동일한 순위권에 올랐던 5월 출시한 '나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로 새롭게 부상했다.

전체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건수는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센서타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시장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900만건 줄어든 1억9000만 건을 기록했다.

이 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의 다운로드드는 17% 감소한 반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7% 증가했다.

한편, 2024년 상반기 한국 시장 모바일 게임 총매출은 약 27억5000만 달러로, 2023년 상반기 약 27억2000만 달러보다 약 3000만 달러 증가했다(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통합 기준).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소폭 성장은 팬데믹 이후 모바일 게임 시장의 긍정적인 트렌드를 반영한다. 시장 상황이 지난해부터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 다만 외산 게임의 공략이 거세다. 이에 따른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서장원 코웨이 대표(왼쪽)가 정윤 UL솔루션스 코리아 대표와 인정서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코웨이

코웨이, 美 제품안전 인증기관 시험소 인증

'UL 솔루션스 공인시험소' 수여식

코웨이가 제품 검증 및 품질 분석 전문성을 인정받아 미국 제품안전 인증기관 UL솔루션스(Underwriters Laboratories Solutions)로부터 지정 시험소 자격을 획득했다.

9일 코웨이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지타워 본사에서 'UL 솔루션스 지정 공인시험소' 인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에는 서장원 코웨이 대표, 정윤 UL솔루션스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UL솔루션스는 미국 표준 개발 및 전기·전자 제품 시험인증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미국 국가공인시험소(NRTL) 및 미국 국가표준기구(ANSI)의 국

가인증위원회(ANAB) 인증을 받은 전문 기관이다. UL 지정 시험소는 미국 및 북미 수출 제품에 필수적인 안전규격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코웨이가 UL 솔루션스로부터 공인 시험소로 인정받은 분야는 'UL 안전 인증 시험소'와 '에너지스타 인증 시험소'다.

이로써 코웨이는 품질관리본부 내 환경안전인증센터를 통해 자체 제품 시험은 물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고효율 에너지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스타' 인증 평가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유튜브 영상 제공

/김승호 기자 bada@ YouTube

“펫 바른먹거리 목표... 첨가물 엄격 관리”

헬씨 인터뷰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

반려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에 맞춰 펫푸드에서도 '바른 먹거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다. 바로 풀무원의 펫푸드 브랜드 '풀무원아미오(아미오)'다.

2013년 펫푸드 시장에 뛰어든 풀무원은 지난해 소비자 인식을 반영해 브랜드를 재정립하고 시장 내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풀무원은 아미오를 지난해 1월 풀무원건강생활에서 풀무원식품으로 편입한 이래 반려동물 식품 사업을 정비하고 브랜드 체계와 방향성 등을 확립했다. 펫푸드를 식품사업의 정체성에 접목시켜 반려동물의 건강에 해롭거나 오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첨가물의 기준을 수립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메트로경제는 김정은 풀무원식품 아미오 반려동물사업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아미오 제품을 기획·개발하면서 타사와 차별화한 부분과 강점은 무엇인가.

“풀무원식품에 준하는 표시사항 검토, 제품 개발 검토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타사 개발 과정보다는 다소 느릴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바른먹거리'라는 목표로 까다롭지만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 아미오는 반려동물식품에 사용 가능한 첨가물 중 해로운 가능성이 있는 첨가물에 대해 '첨가물 원칙-No-No1



김정은 아미오 반려동물사업부장. /풀무원

타사 개발 과정보다 느릴 수 있지만 까다롭고 정확하게, 진정성 있게 개발 자연담은·건강담은 2개 라인업 보유

ist 35'를 수립,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국내외 반려동물 식품 관련 규정 및 제도 기반 알려지 유발 및 유해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존재하는 첨가물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여 안심할 수 있는 펫푸드를 제공한다. 이 밖에 제품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풀무원의 안전안심 제조 위생 기준인 '풀무원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적용해 기존 펫푸드 기준보다 더 까다롭고, 꼼꼼하게 제품을 생산 관리하고 있다.”

-해외 유명 사료가 시장 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풀무원의 계획과 전략은?

“아미오는 자연이 주는 영양을 담은 가장 맛있는 레시피 '자연담은'과 수의사가 제안하는 기능별 건강케어 '건강

담은'이라는 2가지 라인업을 통해 차별화한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내가 먹는 식품을 그대로 반려동물과 즐기자 하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 우리가 평소 맛있게 먹는 풀무원 대표제품인 두부, 동물복지 닭을 그대로 사용하여 반려동물 사료, 간식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기호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했다. '건강담은'은 반려동물의 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여러 질병을 예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고민에 맞춘 항산화 기능을 기초로한 기능성 라인업이다. 건강담은 라인업은 풀무원아미오 내과 전문 수의사가 직접 설계하여 반려동물과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능별 원료에 충실하여 레시피를 설계하고 있다.”

-특정 견종이나 타깃 수요층이 있는가.

“아미오는 반려동물 나이와 기능을 불문하고 모든 반려동물의 바른먹거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미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또한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아미오를 접한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이 '풀무원에서 나오니 믿을 수 있다', '사람들도 믿고 먹는데 반려동물 제품도 당연히 신뢰할 수 있다', '제품이 신선하다'라는 반응이다. 믿고 먹는 풀무원이 만드는 펫푸드이기 때문에 신뢰해주시는 거 같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국항공공사, 협력사 ESG경영 지원 나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약

한국항공공사가 올해 처음으로 협력사 ESG경영 지원에 나선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항공공사와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공사는 우리나라 14개 지방공항공을 통합 건설·관리·운영하며,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항공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항공업 전문 공공기관이다.

공항공사는 2008년 첫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ESG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협력사와의 자발적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공급망 ESG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사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협력사들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를 지원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할 계획이다.

먼저 그린 Value-Chain을 강화하고 협력사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CEO 및 실무자 대상의 ESG 경영 내재화 교육 ▲ESG 경영 심층진단 및 컨설팅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보호와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김포공항 폐아스콘 자원순환사업'의 전국공항 확대 등 순환경제를 위한 ESG 경영활동을 지속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부메랑RPG' 마음의 소리와 깜짝 컬래버

슈퍼플래닛, 100만 다운로드 기념

슈퍼플래닛의 모바일 역할 수행 게임(RPG) '부메랑RPG: 던져라! 듀드'가 전 세계 100만 다운로드 달성을 기념해 네이버 만화 '마음의 소리'와 깜짝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슈퍼플래닛에 따르면, 이번 컬래버를 함께 진행하는 '마음의 소리'는 조석 작가의 작품으로, 완결을 기준으로 누적 조회수가 70억이 넘는 네이버 만

화다.

'대환장 컬래버레이션'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게임은 조석과 게임 캐릭터 듀드가 듀드월드에서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주인공 '조석'을 비롯해 '최애봉', '짜따너', '서부욱'이 캐릭터로 등장하며, 인질로 잡혀 있는 캐릭터들을 탈출시키면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되어 전투를 벌일 수 있다.

게임 이용자는 오는 21일 출시 보상으로 컬래버 캐릭터를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s4187@

10년된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새로운 투자길 열려”

산업부,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시행 회계·세무·기타금융투자업 등 포함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 자금 조달

준공 후 10년 경과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는 등 기업들이 산단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한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작년 8월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산단은 관리기관이 입주업종을



안동시 풍산읍 일원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전경. /뉴시스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고, 자동차 및 주기업의 수요가 있는 경우 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서비스업, 기타 금융투자업 등 입

기반시설 영향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신산업 업종판단 등을 위한 입주심의기구도 설치한다.

또 비수도권 산단 내 산업용지와 공장 등의 소유권을 투자자에 이전하고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으로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업자, 부동산투자회사,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임차기업 보호를 위해 투자자가 용지나 공장 등을 처분 시 임차기업에 우선매수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접한 공장의 여유 부지를 임차해 제조시설이나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산단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접한 임차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연계해 제조시설 또는 관리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투자가 가능

하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자회사인 케이랩을 통해 연접한 공장 여유 부지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24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생산공장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차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작년 대책발표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현장 애로 또한 지속적으로 찾아내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기자재 해외 바이어 발굴·판로개척 박차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 상담회 11일 오크우드 코엑스 센터서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서울 오크우드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2024년 농기자재 해외 구매업체(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고 유력 바이어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K-농기자재는 스마트팜·동물용 의약품 등과 함께 농식품 분야의 전후방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농식품 연관산업의 수출전략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후방산업과 K-푸드를 합친 ‘K-푸드+’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이 행사에는 인도·파키스탄·태국 등 14개국 소속 유력 구매업체 20개사를 비롯해 비료·친환경농자재·시설자재 등 국내 수출기업 30개사가 한자리에 모인다. 총 160여 회 이상의 일대일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 온라인 상담회를 시작으로 매년 농기자재 수출상담회를 지원해 왔고, 최근 계약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최한 수출상담회에서는 유기농액비·비료·스마트팜 자재 업체들이 참가해 상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5월23일 충북 충주의 한 논에서 ‘자율주행 이앙기’로 모내기 하고 있다. 이 농기계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됐다. /뉴시스

액 6000만 달러, 800만불 규모(8건)의 현장계약 및 업무협약(MOU)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수출상담회 성과제고를 위해 사전에 국내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성공 사례와 수출상담회 노하우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업체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등 수출상담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수출상담회 종료 후에도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 간 사후상담을 지속 추진해 후속성과 가나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력 진성 구매업체(바이어) 발굴에 힘쓰고 있다. 구매업체 규모, 운영중인 유통 및 판매 채널, 한국과의 거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수출기업 공유 및 수출상담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10월31일에는 ‘2024대한민국 국제 농기계자재 박람회(KIEMSTA)’와 연계해, 농기계 및 시설자재 등을 중심으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대구 엑스코(EXSCO)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말레이시아서 인삼·딸기 등 ‘인기 만점’

1700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4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1700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딸기와 인삼 등의 말레이시아 시장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농식품부와 aT는 충남과 경북 등 수출 주력 지자체 및 우수 수

출기업 10여 곳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했다. 한국관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인기 있는 대표적인 K-푸드인 딸기, 인삼, 건강기능식품, 김치 등을 선보였다.

특히,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위해 3월부터 박람회 주최사와 연계해 한국관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다. 행사 개최 2주 전에는 현지 주요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간 사전 온라인상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전 상담으로 연

결된 현지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가 박람회 현장에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aT 관계자는 “한국관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업체별 디렉토리북 제공, 전문 MC를 활용한 시간대별 제품 홍보와 시식행사 등을 진행해 참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방문객들이 QR코드로 간편하게 각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 MC의 생동감 넘치는 설명과 현장 시식회 참여로 K-푸드의 매력에 빠졌다”고도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귀농귀촌플랫폼 ‘그린대로’ 가입자 4만명

농식품부 “플랫폼 성공적 운영” 평가

귀농귀촌통합플랫폼 ‘그린대로’의 운영 첫해에 4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들 중 1000명 넘게 귀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9일 귀농귀촌 정책, 농지·주거, 일자리 등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모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인 그린대로의 운영 성과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작해 올해 6월까지 1년간 방문자 수는 총 59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1만6397명이 방문했다. 주요 매뉴얼 조회 수를 살펴보면 농촌에서 살아가기·동네작가 등으로 구성된 ‘체험정보’(31.5%)가 가장 많았다.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총 4만308명으로, 일 평균 112명이 가입했다. 연령 대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회원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과반(52.8%)을 기록했다. 또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가진 회원들이 영농정보·농촌생활 등에 대해 소통할



단양군 귀농귀촌인 한마음 행사. /뉴시스

수 있는 공간인 ‘커뮤니티’에는 88개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청년이 전체(767명)의 46%(353명)를 차지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농식품부에서 신규 가입 회원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파악한 결과, 총 1079명이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귀촌 플랫폼으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윤원섭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지난 5월에 빅데이터 분석 기반을 도입하고, 청년농동합플랫폼 ‘탄탄대로’를 구축해 정보제공 기능을 한층 고도화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11년 역사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막

해수부, 크루즈 산업 활성화 논의

해양수산부가 제주도와 공동으로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대종글래드제주 호텔에서 ‘제1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크루즈 산업 박람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매년 아시아지역 주요 크루즈 선사, 기항지 핵심관계자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난 2013년 1회 포럼 이후 매해 개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지속성장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열린다. ‘글로벌 크루즈의 트렌드와 협력’,

‘선사가 바라본 한국 크루즈산업 활성화의 도전과제’를 세부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세션 및 글로벌 선사의 아시아 지역 운영 전략을 소개하는 세션 등으로 구성된다.

또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시아 주요 기항지와 국제 크루즈 선사 간 공식 비즈니스 미팅과 주요국의 크루즈 관광객 출입국 절차를 공유한다. 관련 국내 제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크루즈 발전 협의회 등도 개최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다시금 항해를 시작한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해남군, 검은 반도체 '김산업' 글로벌화로 발전동력 모색

지난해 사상 최대 1138억 판매고
기후변화에 생산량 ↓... 대응 시급
2027년까지 수산양식업 산단 조성

해남군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는 농수산업의 미래 전략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 발전방안을 모색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8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해남농수산업 미래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김산업 진흥에 전 부서가 협업해 발전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삼면이 청정바다로 둘러싸인 해남군은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이자 100여개소에 이르는 최대 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해남김은 지난해 최초로 물김 위판액 1000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인 1138억원의 판매고



해남군청사 로비 전시회 앞에서 명현관 해남군수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해남군

를 올렸다. 2023년에는 전국 최초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황산면의 친환경 지주식 유기인증 김에 대한 브랜드 개발과 가공에도 착수했다.

올해 말 정부 김 육상 양식 공모사

업에도 도전할 계획으로, 기업체·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김 수출 확대를 위한 육상양식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김 산업 혁신방안도 본격 추진해 세계적인 기준에 맞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미래산업으로서 어업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김은 지난해 전라남도 수산물 수출 품 1위로, 지난해 수출 1조원을 달성하며 검은 반도체라 불릴 정도로 수출 효과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일본 등지의 김 생산량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후변화대응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남군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해양수산부 수산양식 기자재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2027년까지 수산양식업과 관련된 기자재의 생산과 유통, 수출, 연구개발 등을 집적화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조성되는 수산양식 기자재 전문 산업단지는 육·해상 테스트베드 등을 통한 첨단스마트화 연구개발은 물론 전국 최대 수산업 지역인 전남의 수산양식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미래세대의 먹거리가 될 장기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203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 '농어촌 수도, 해남' 전략에 맞춰 국립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중심의 농업분야와 더불어 어업분야의 기후변화대응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 초 농수산물 수출 협의를 위한 미국방문을 통해 김 수출의 가능성을 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수산업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양식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농어촌 수도 해남의 발전동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완도군

전국 최초 '112한달음선' 발대식

완도군에서는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112한달음선'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112한달음선' 대원으로 위촉된 26명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112한달음선'이란 경찰이 미배치된 인구가 적은 섬의 주민 치안을 위해 완도군이 지원하고 완도경찰서가 지정·요청하여 운항하는 민간 선박이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거창군

60세대에 '여름나기 키트' 지원

거창군은 거창군자원봉사센터에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 등 60세대에 '시원한 여름나기 키트'를 제작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6번째 시행하고 있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경남남도자원봉사센터와 1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폭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해 자체 포장해 제작한 키트는 서큐레이터, 여름 이불, 해충 퇴치기 등 5종 제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거창(경남)=이도식 기자

부산시

커피도시 홍보대사에 '폴킴'

부산시는 '커피도시 부산'을 알릴 홍보대사로 가수 폴킴을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위촉식을 열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위촉패를 전달하고 폴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폴킴은 2014년 데뷔곡 '커피 한 잔 할래요'로 큰 인기를 얻었고, 이후 다수의 히트곡과 드라마·영화 OST 작업으로 국민들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폴킴의 반듯하고 똑똑한(스마트한) 이미지는 모든 연령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커피도시 부산'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경주시

황리단길 상가 화장실 무료 개방

경북 경주시는 황리단길 내 상가 300곳이 화장실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500여 곳 중 60%에 해당하며 이날부터 방문객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점포주동의를 얻어 화장실을 무료 이용할 수 있다.

황리단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개성 넘치는 거리로 늘 관광객이 북적이며 지난해 1300만 명이 방문한 경주 대표 관광명소다. 하지만 공용 화장실이 포석로 공용주차장, 송해전 소공원, 대릉원,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등에 한정돼 불편을 겪어 왔다.

/경주(경북)=김상복 기자

목포시, 올해 말까지 화장로 1기 추가증설

지역민 위한 화장서비스 개선

목포시가 장례문화 변화 등 화장 수요 급증에 따른 화장로 증설 국비에 산등을 확보, 2024년말까지 화장로 1기를 추가증설해 전남 서남권 지역민들을 위한 화장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남 서남권은 화장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화장문화 정착으로 화장로 증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었다.

현재, 목포시에서 위탁 운영중인 화장장은 2015년 12월에 개장해 6기의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으나 전남 타지역 시설에 비해 가동률이 월등히 높은 포화상태로 목포시민은 물론 인근 시군 주민들의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화장수요의 증가에 따른 3일장에서 4일장으로의 장례비율이 꾸준

히 높아짐에 따라 신안 도서지역의 경우 화장장이용 불편 민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 화장로 증설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화장로 증설을 위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국비(3억3천5백만원)를 확보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6억6천만원 예산으로 연내 완공을 목표로 화장로 1기 증설에 들어간다. 목포시 추모공원은 화장로 추가설치 공간이 확보된 상태로 별도 건축물 증축 없이 신속하게 화장로 1기 설치가 가능하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통합의 공감대를 위한 상생 발전과제로 도서주민들을 위한 화장로 1기를 증설해, 목포시민과 신안군민은 오전에 화장장을 우선 예약할 수 있는 관내주민 우선예약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경남도, 베트남서 K-수산식품 수출 성과

9개社, 9.3만달러 수출계약

경남도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경남도K-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관측 및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경남 수산식품기업 9개사가 참가해 수출의향협약 281만 달러와 수출계약 9만3000달러(1억28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참가 업체들은 붕장어, 굴통조림, 게장류, 젓갈류, 부각류, 조미김류, 활수산물 등 27개 품목을 홍보했다.

경남도는 1일부터 7일까지 호찌민의 신도시인 투득군에 있는 티쏘몰(T hiso Mall Sala)에서 경남 우수 수산식품 홍보·관측 행사를 진행했는데, 베트남 시장 개척에 참여한 9개 사 중

7개 업체가 참여해 조미김, 굴 통조림류, 부각류, 젓갈, 게장, 해물떡볶이 등 가정에서 바로 먹을 수 있거나 요리가 간편한 17개 제품을 소개했다.

베트남의 인플루언서(Influencer)와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했고, 3350여 개의 '좋아요'와 2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경남의 K-수산식품 인기를 확인했다. 또 행사 기간 중 베트남 현지 바 이어 20개 사와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베트남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했고, 11건 281만 달러의 수출의향협약을 체결했다.

하반기에는 중국 청도 수산박람회 참가와 국내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지난 8일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하고 있는 사진.

대구시, 영·호남 지역균형발전 도모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9대 공동대응 성명 채택

탄소중립·저출생 등 지원

대구시를 비롯한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지난 7월 8일 전북 무주에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9대 공동대응 성명을 채택했다.

8개 시·도는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주도해 나아가는 데 깊이 공감했으며, 지역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동협력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과제(1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

공동협력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공동대응, ▲GB 지역전략

사업 대체지 지정 요건 완화,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R-비자) 제도 건의, ▲삼 살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이다.

대구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에 따라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조와 시·도간 협력을 강조했으며,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 수립 시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저출생 지원 정책 추진과 함께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8개 사업 29조6,857억 원)를 건의하고, 2024대구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시·도별 주요행사 15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울산시, 기업체에 무더위 휴식제 참여 독려

2565곳에 서한문 발송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 명의로 지역 2565개 기업체에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과 함께 폭염 일수가 늘

어내고 강도도 강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마다 근로 중 발생하는 온열 질환자 예방을 위해 울산지역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당부하는 취지이다.

서한문은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요청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곧 초복... 외식보다 알찬 ‘간편 보양식’으로 건강 챙겨요”

15일 ‘초복’ 보양식 할인행사

롯데온 내달 8일까지 ‘복날 위크’ 소고기·닭고기·밀키트 등 할인 롯데마트 ‘보양식 밀키트’ 출시

신세계백 ‘신백멤버스 페스타’ 갯장어·민물장어 등 특가 판매

유통업체가 복날을 맞아 보양식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9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오는 15일 초복을 맞이해 다양한 보양식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롯데온은 다가오는 초복부터 말복까지 부담없이 보양식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모아 ‘복날 위크’ 행사를 준비했다. 롯데마트는 여름 보양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복날 보양식 트렌드는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한 재료를 편리하게 즐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과 밀키트 삼계탕의 인기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2030 고객들에게는 보양식 목적의 삼계탕보다는 찜닭, 닭갈비 등 닭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이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보양식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초복을 겨냥한 다양한 보양식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가정 간편식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1~2인 가구에서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보양식 밀키트 신상품 ‘누룽지 닭백숙’과 ‘닭한마리 장칼국수’를 새롭게 선보인다. 그리고 롯데마트와 슈퍼가 공동소싱해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는 레토르트 삼계탕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초복 대표 인기 상품전과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전점에서는 원기 회복을 위한 축산 상품을 준비했다. 찜갈비, 불고기, 국거리, 양지, 사태 등 고단백과 풍미를 자랑하는 소고기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삼계탕용 영계, 토종닭, 백숙



SSG닷컴이 준비한 보양식 ‘해신탕’ /SSG닷컴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상품을 들고 있는 모델. /롯데백화점

롯데온은 다가오는 초복부터 말복까지 부담없이 보양식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모아 ‘복날 위크’ 행사를 준비했다.

롯데마트는 여름 보양식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최근 복날 보양식 트렌드는 합리적인 가격의 건강한 재료를 편리하게 즐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가정 간편식과 밀키트 삼계탕의 인기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또한 2030 고객들에게는 보양식 목적의 삼계탕보다는 찜닭, 닭갈비 등 닭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들이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다.

롯데마트는 이 같은 보양식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어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초복을 겨냥한 다양한 보양식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가정 간편식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1~2인 가구에서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보양식 밀키트 신상품 ‘누룽지 닭백숙’과 ‘닭한마리 장칼국수’를 새롭게 선보인다.

그리고 롯데마트와 슈퍼가 공동소싱해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하는 레토르트 삼계탕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2일부터 25일까지 초복 대표 인기 상품전과 팝업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전점에서는 원기 회복을 위한 축산 상품을 준비했다. 찜갈비, 불고기, 국거리, 양지, 사태 등 고단백과 풍미를 자랑하는 소고기를 최대 40% 할인 판매하며 삼계탕용 영계, 토종닭, 백숙

닭 등을 초복 맞이 특가로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도 초복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신백멤버스 페스타’의 일환으로 보양식과 제철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초복 맞이 보양식 특가 이벤트는 여수와 고흥 연안바다에서 잡은 제철 갯장어와 깨끗한 수질의 양어장에서 1년간 건강하게 키운 민물장어, 전남 완도에서 건강하게 키운 1kg당 7~8미 사이의 전복을 특가로 만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세계백화점 앱(APP)에서는 갯장어와 얇힌 재미있는 이야기와 대표적인 여름 보양식 ‘갯장어 사부사부’의 레시피, 갯장어의 고장 여수의 로컬 보양식 맛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SSG닷컴(쓱닷컴)도 초복을 앞두고 오는 8~11일 ‘푸드씩세일-올 어바웃 치킨’ 행사를 통해 닭고기를 중심으로 여름철 인기 식품 4000여종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삼계탕과 닭고기 양념육, 프라이드 치킨 등 닭과 관련된 상품은 물론 왕특 사이즈 전복과 왕 사이즈 전복을 반값에 한정 판매한다.

홈쇼핑업체와 편의점도 초복맞이에 한창이다. NS홈쇼핑은 초복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온라인 몰과 모바일 앱에서 ‘더위 뿌셔! 인기 보양식대전’을 진행한다. NS홈쇼핑 온라인 몰과 앱에서 초복을 맞아 보양식을 특가 판매한다. ‘더위 뿌셔! 인기 보양식 대전’에서는 복날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영계닭 ‘올품 영계 55호(530g) 2마리’를 400개 한정 수량으로 무료배송 6900원에 판매한다. 선착순 300명 배송비 지원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 ‘완도 활전복’ (50g내외)은 10미 구성 9900원, ‘손질 낙지’ (200g) 5팩을 볶음 양념과 함께 구성한 세트도 9900원에 만날 수 있다.

CU는 이달 9일과 11일, 통 민물장어를 활용한 보양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 통통하고 부드러운 민물장어를 통째로 올린 프리미엄 간편식으로 1만원 남짓한 가격에 구매 가능한 알뜰 상품으로, 6만5000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모바일용 홈쇼핑 숏폼, AI가 만들어줘요”

신세계라이브쇼핑 ‘AI 숏츠’ 도입 방송화면·멘트 분석 1분 숏폼 제작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인공지능(AI)이 방송을 직접 분석해서 숏폼으로 만드는 ‘AI 숏츠’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AI 숏츠는 신세계라이브쇼핑이 숏폼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최근 추세에 맞춰 개발한 것으로, TV 방송용 콘텐츠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모바일 고객에게 최적화된 영상을 효율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서비스는 AI가 기존 20~60분 분량의 방송 화면과 멘트 등을 분석해 자동으로 1분의 숏츠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특히 베스트 스틸 컷을 추출해 초기 화면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영상 비율 변환과 영상 배경 디자인, 자막 자동 삽입 등의 전 과정을 AI가 제어한다.

고객들은 신세계라이브쇼핑의 앱에서 해당 영상을 볼 수 있으며, 한 번 영상을 시청해 스와이프 영역에 들어오면 일반 SNS처럼 숏츠 영상만 계속 넘겨볼 수도 있다.

관심 없는 영상을 빠르게 넘기고 원하는 상품의 요약 영상만 골라볼 수 있어 고객들의 쇼핑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패션 전문관에서 쇼핑하는 고객에게는 패션 영상을, 식품을 보는 고객에

게는 식품 영상을 제공하는 등 고객 관심사에 맞춰 숏츠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메인 화면에서는 BEST 숏츠를 제공한다. 현재는 하루에 10개 내외의 숏츠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고객의 반응을 파악해 형태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AI를 활용하고 고객의 쇼핑을 편하고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먼저 업계 최초로 선보인 ‘AI 자동 답변’은 최신 챗GPT와 홈쇼핑 고객의 관심을 기반으로 학습돼 고객의 어떤 질문에도 능동적으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농심, 사내 스타트업이 만든 막걸리 출시

‘반려견 영양제’ 3종도 첫 선

농심은 사내 스타트업 N-Start(이하 엔스타트) 4기에서 개발한 ‘반려견 영양제’ 3종과 막걸리 ‘꿀파배기맛주’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심 엔스타트는 직원 누구나 농심이 보유한 내부역량을 활용해 신사업을 제안하고 리더가 되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4기로 선정된 총 6명의 직원들이 ‘반려동물 영양제’와 ‘전통주’를 테마로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농심이 지난 8일 출시한 반려견 영양제는 ‘반려다움’ 브랜드로, 각각 반려견의 관절, 눈,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려다움 조인트 서포트’, ‘반려다



농심 꿀파배기맛주 /농심

움 클리어 아이즈’, ‘반려다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의 인정을 받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효능을 극대화하고, 각 제품마다 성분과 함량을 투명하게 표시해 신뢰성을 높인 것이 차별점이다. 온라인 반려다움 브랜드샵(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백화점면세점 ‘현대면세점’으로 새출발

사명 바꾸고 면세사업 전문성 키워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사명을 ‘현대면세점’으로 변경한다. 사명에서 백화점이란 단어를 떼어내 면세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고객들이 더 쉽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현대면세점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명도 기존 현대백화점면세점에서 ‘현대디에프’로 바꿀 예정이다.

현대면세점과 현대디에프라는 상표

권은 현대자산이 보유하고 있었다. 사명과 법인명 변경을 위해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지난달 현대자산과 상표권 양수도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이달 초 특허청에 상표권 관리이전 등록을 신청했다.

현대면세점은 사명 변경과 함께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유치는 물론, 국내외 마케팅도 강화해 사업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점포별 특색에 맞는 명품 및 K패션 브랜드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인천 공항점은 이달 말 제1여객터미널에 펜디가, 제2여객터미널엔 구찌 부티크가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 전경 /현대백화점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생로랑과 발렌시아가 부티크가 각각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문을 열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롯데웰푸드 ‘이온플러스+’ 브랜드 론칭

킨디·빙과 등 신제품 2종 선보여

롯데웰푸드가 간편하고 시원한 전해질 보충을 위해 ‘이온플러스+(플러스)’ 브랜드를 론칭하고 캔디와 빙과 등 총 2종의 신제품으로 헬스&웰니스 영역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온이라고도 불리는 전해질은 원활한 신체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4대 미네랄 성분(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을 뜻하며, 혈액이나 체액 등에 적절한 비율로 유지되어야 한다. 야

외활동이 많아지고 더위가 찾아오는 여름철에는 땀이 많이 나면 전해질이 손실되기 쉬워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보충해줘야 한다.

롯데웰푸드의 ‘이온플러스+’는 휴대와 간편한 섭취에 초점을 맞춘 ‘이온플러스+ 캔디’와 음료보다 시원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온플러스+ 아이스’를 선보인다.

‘이온플러스+ 캔디’는 섭취와 휴대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다양한 색상에 캐릭터·기능성까지... 골프웨어 경계 허물다

크로포

'하우스 오브 먼싱' 기획전

리브랜딩 통해 신규 소비자 발굴 필드-일상 병행 제품군 구성 성별 구분없이 누구나 착용 가능

골프웨어가 골프를 즐기는 중장년층 위주라는 편견이 깨졌다. 골프 전문 의류 브랜드 '먼싱웨어'가 주최한 '하우스 오브 먼싱' 기획전에 방문해 보니 경쾌한 색감에 산뜻한 옷들이 입구부터 진열돼 있었다.

노란색, 분홍색, 흰색, 베이지색 등 더운 여름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골프웨어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색상뿐만 아니라 곳곳에 진열된 옷들에는 귀여운 캐릭터도 눈에 띄었다. 무겁고 전문적인 것 같은 골프웨어의 느낌이 한층 더 가볍게 다가왔다.

먼싱웨어 관계자는 이번 신규 제품의 기획을 설명하며 "먼싱웨어는 이번 브랜드 정비를 통해 소비자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아메리칸 헤리티지 골프웨어의 기준을 제시하는 동시에 프리미



'하우스 오브 먼싱' 기획전에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있다.



/안재선 수습기자

엄 골프웨어로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대상트코리아의 골프웨어 브랜드 먼싱웨어가 '하우스 오브 먼싱' 행사를 개최했다. 먼싱웨어에 따르면, 행사는 오는 2025년 새롭게 변화되는 먼싱웨어의 리브랜딩 계획을 소개하고 이에 맞는 신상 제품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엔데믹 이후 전반적으로 골프 연령대와 스타일이 젊어진 것이 이번 먼싱웨어 리브랜딩 계획의 배경이 됐다.

먼싱웨어 측은 "신규 소비자를 발굴하고 그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장에 들어서니 골프웨어의 가장 먼저 '허물어진 경계'가 보였다. 바로 연령대다. 행사장 1층에는 기존 무거운 느낌의 색상 위주로 구성됐던 먼싱웨어의 브랜드가 젊은 층의 산뜻함을 품은 모습으로 재탄생돼 있었다. 빨간색, 주황색, 흰색의 톡톡 튀는 색상 옷이 12월, 3월, 4~5월, 6~7월 별로 빼곡히 진열됐다.

브랜드 관계자는 "이제 골프를 많이 치는 40대, 50대분들을 겨냥해서 브랜드 색깔을 바꿨다"고 말했다.

2층으로 올라가니 2025년 새로 추가될 '펍킨 바이 먼싱웨어'라는 상품군이 눈에 띄었다. 두 번째로 허물어진 경계, 바로 다목적 의류 스타일이었다.

기존 골프를 즐길 때가 아니면 입을 수 없을 것 같던 기능성 위주의 골프웨어가 생활 의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꼭 골프 라운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이다. 먼싱웨어 관계자는 "너무 골프 옷 같으면 사람들이 필드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고 한다"며 "그냥 입고 가서 곧바로 치고, 곧바로 샤워하고 입고 올 수 있도록 제품군을 구성했다"며 펍킨 바이 먼싱웨어 상품들을 소개했다.

이번 '펍킨 바이 먼싱웨어' 리브랜딩 상품에는 성별의 경계도 사라졌다.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무난한 색상의 디자인과 귀여운 캐릭터 로고가 눈에 들어왔다.

브랜드 관계자는 "의류 제품군은 70%가 남성, 30%가 여성 위주의 의류 상품으로 구성됐으나, 70%의 남성 의류 제품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유니섹스 상품으로 구성됐다"며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옷을 구매해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먼싱웨어 관계자는 "국내 골프웨어 시장이 재편되면서 필드와 일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골프를 보다 가볍게 접근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상품 요구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안재선 수습기자 wotjis4187@metroseoul.co.kr

KT&G "전국 어디서나 '릴 에이블 2.0' 만나보세요"

편의점 등 전국 온·오프 판매 기존 제품 보상판매 이벤트도

KT&G가 편의성과 디자인을 강화한 쉐어링 전자담배 '릴 에이블 2.0'의 판매처를 서울 주요 편의점과 전국에 위치한 릴 스테이션, 릴 온라인몰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릴 에이블 2.0'은 지난달 26일 플래그십 스토어인 릴 미니멀리움 6개소에서 처음 출시됐다. 이어 오는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요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8510개소와 전국에 위치한 릴 스테이션 525개소로 판매처



릴 에이블 2.0 /KT&G

가 확대되며, 릴 공식 홈페이지의 온라인몰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릴 에이블 2.0'은 디바이스 하나로 '리얼', '그레놀라', '베이퍼 스틱'의 3

가지 종류 스틱을 즐길 수 있으며, 밸런스 모드와 클래식 모드 등 2가지 사용모드가 장착돼 차별화된 흡연감을 제공한다. 또한 사용전 예열시간 20% 단축, '일시 정지' 및 '고속 충전' 기능 적용 등 사용자 편의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 했다.

제품 색상은 '코튼 블루', '코지 버건디', '스페이스 블랙', '샴페인 골드' 총 4가지로 판매처별 구매 가능한 색상이 다르다. 릴 미니멀리움의 경우 4가지 색상 모두 구매 가능하며, 편의점과 온라인몰에서는 '코튼 블루'와 '버건디' 2가지 색상을 구입할 수 있다.

'릴 에이블 2.0'의 권장 소비자는 8만8000원이다. '릴 에이블 1.0' 제품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기를 반납하면 3만원을 할인해주는 보상 판매 이벤트도 진행된다. 구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G의 임왕섭 NGP사업본부장은 "릴 에이블 2.0은 출시 직후부터 제품 기능과 편의성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쉐어링 전자담배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아제약 '미니맥스 랩 솔루션' 출시

동아제약은 어린이 용 구강 관리 제품인 '미니맥스 랩 구강 솔루션(사진)'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미니맥스 랩 구강 솔루션은 구강 특허 유산균 '오라 씨엠유'를 함유한 제품이다.

'오라 씨엠유'는 건강한 한국인 어린이 구강에서 유래한 유산균으로, 구강 정착성이 우수한 점이 특징이다.

또 이번 신제품은 당류 0g으로 양치 후에도 안심하고 섭취 가능하다.

동아제약은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네이버 공식 스토어와 디몰에서 구강 솔루션 구매 시 미니맥스 정글 프로폴리스 본품을 무료로 증정한다.



/이청하 기자

이자카야 나무 "여름휴가 경품 쏩니다"

엔엠에프 100% 당첨 즉석복권 제공

㈜엔엠에프가 운영하는 외식업 브랜드 '이자카야 나무'는 여름휴가를 응원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15개 매장에서 1억원 이상의 대규모 경품 이벤트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저녁타임(16시 이후)에 방문한 고객에게 테이블당 1매의 즉석 스크래치 복권을 제공하는 여름휴가 응원 이벤트다. 참여 고객 전원 100% 당첨 이벤트로 경품 당첨여부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된 고객 1등 1명에게는 1800만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2등 3명에게 250만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 3등 6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4인 골프라운드권 등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장창덕 ㈜엔엠에프 마케팅본부장은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릴 즐거움을 선사하고, 이자카야 나무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전하며, "매장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다양한 메뉴와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직장동료, 친구, 선후배 등 이자카야 나무를 찾는 많은 고객들에게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자카야 나무의 여름휴가 응원 이벤트는 강남점, 선릉점, 서초점, 삼성타운점, 논현점, 종각점, 대치점, 여의도점, 구로디지털단지지역점, 사당점, 시청점, 강남역(CGV)점, 서여의도점, 사당역2호점, 교대점 등 서울 시내 15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신원선 기자

에스티젠바이오, 'BIX2024' 부스 운영

파트너사 미팅 등 수주 확대 주력

동아씨오홀딩스의 자회사 에스티젠바이오가 제약·바이오 전시회를 통해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강화할 예정이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4(BIX 2024)'에 단독부스로 출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바이오협회와 리드엑시비전코리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시회다. 부스 전시를 비롯해 컨퍼런스, 파트너링 등이 진행되며 올해는 250여 기업이 참여하고 36여 개의 세미나가 열린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지난 2023년에 이

어 2년 연속으로 후원사 및 단독부스로 출전한다. 에스티젠바이오는 참관객들과 기업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고, 부스 내 공간에서 잠재 파트너사 미팅을 통해 수주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에스티젠바이오의 핵심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 서비스다. 에스티젠바이오는 항체의약품, 재조합 단백질 등과 관련된 원료의약품과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의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설비를 약 9000L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에스티젠바이오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품(FDA), 유럽 의약품청(EMA),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캐나다 보건국, 사우디 식품의약품안전청(SFDA) 등 글로벌 규제기관들의 실사를 앞두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NS홈쇼핑 '웨딩패키지' 선봬

NS홈쇼핑이 웨딩패키지 상품을 TV 홈쇼핑 최초로 선보인다.

NS홈쇼핑은 오는 10일 밤 10시 55분부터 웨딩 전문기업 다이렉트컴즈의 '다이렉트결혼준비 웨딩패키지'를 단독 론칭한다고 9일 밝혔다.

'다이렉트결혼준비 웨딩패키지'는 스토드(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패키지 상품이다. 웨딩을 투어부터, 본식 당일까지 1:1 전담 플래너가 배정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본식을 위한 '드레스+메이크업' 구성부터, 토탈스튜디오 촬영이 더해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구성 등 '다이렉트웨딩'의 다양한 웨딩 패키지를 확인해 보고, 상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이자카야 나무의 여름휴가 응원!



1억 원 1천명 경품 이벤트



2024.
7.15.~8.31.

이자카야 나무에서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4인 골프 라운딩 (그린피+카트비) 6명 등
1천 명에게 1억 원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2024. 7. 15. ~8. 31. (1.5개월)

대상

이벤트 기간 내 저녁 방문 모든 고객 (점심 고객 제외)
테이블 수에 맞춰서 스크래치 복권 1매 제공 및 응모
금액 결제 시, 복권 제공

참여 방법

팜 없는 스크래치 복권 (기간 내 중복응모 가능)

이벤트 발표 및 경품 지급

15개 지점 현장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골프 라운딩(4인 그린피+카트비) 등

Tel: 02-511-6787 / E-mail: namu19817@naver.com

www.namulove.co.kr

경품 내용

- 1등 샤넬 클래식 핸드백(11.12 클래식 핸드백) x 1명
(1,800만 원 상당)
- 2등 샤넬 클러치백(클래식 클러치 미디움 은장) x 3명
(750만 원 상당)
- 3등 4인 골프 라운드권 x 6명
(900만 원 상당)
- 4등 10만 원 식사권 x 192명 (약 1,90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5등 쿠보타센쥬 사케(96,000원) x 240명
(약 2,300만 원 상당)
- 6등 5만 원 식사권 x 576명 (약 2,88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7등 참여자 전원 생맥주 두 잔씩(복권 한 장 당 생맥주 2잔)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이화의료원, '9차 이화메디테크포럼' 성료

이화의료원은 지난 3일 이대서울병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제9차 이화메디테크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화의료원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연구처가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포럼은 글로벌 시대의 연구개발(R&D)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K바이오메디' 비전을 논의했다. /이화의료원



거래소, 취약계층 어르신 '행복나눔 꾸러미' 후원

한국거래소는 9일 부산 남구 옹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250명에게 초복맞이 영양특식과 행복나눔 꾸러미를 후원하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초복맞이 부산지역 취약계층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Sh수협은행,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

Sh수협은행은 '2024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강신숙 수협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강원도 양양군 남애리를 방문해 어업활동지원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진행했다. /Sh수협은행



정인옥학술장학재단, 산림·임업분야 인재 지원

삼표그룹 장학재단인 정인옥학술장학재단이 산림·임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해 국립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에 500만원 상당의 실습용 장비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실습용 장비 지원과 함께 산림·임업 장비 전문기업인 유라통상이 참여해 국립공주대학교 산림과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비 사용법 등 현장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삼표그룹



티웨이항공, 지역 청소년 대상 '크루 클래스' 운영

티웨이항공은 지난 8일 속초양양교육지원청과 강원도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공 진로 탐색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크루 클래스(Crew Class)'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화재진압 실습 ▲서비스 실습 ▲슬라이드 탈출 ▲비상 상황 시뮬레이션 등 기내 상황체험과 안전훈련을 실시했다. /티웨이항공

LG전자, '테네시 타이탄스' 후원... 美 입지 강화

테네시주 내슈빌시 연고지 의류 재활용 등 지역사회 소통

LG전자가 미국 생활가전의 핵심 생산거점인 미국 테네시 지역의 프로풋볼팀을 후원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한다.

LG전자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시에 연고를 둔 미국프로풋볼리그(NFL)팀 '테네시 타이탄스'의 공식 후원을 3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LG전자는 타이탄스 선수들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활동 및 가전 기부 캠페인 등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날 타이탄스 트레이닝 센터에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 정규황 부사장(왼쪽)과 타이탄스 COO 댄 윌리 미국 테네시 지역의 프로풋볼팀 후원 연장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서 진행된 기념행사에는 정규황 LG전자 북미지역대표 겸 미국법인장과 댄 윌리 타이탄스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주요 관계자들과 타이탄스 전현직 스타 선수들이 참석

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후원 계약 체결 후 LG전자 테네시 공장에서도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LG전자 테네시 공장 현장 직원과 타이탄스 선수들은 LG전자의 브랜드 슬로건 '라이프스굿(Life's Good)'과 타이탄스의 응원 구호인 '타이탄 업(Titan Up)'을 외치기도 했다.

LG전자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테네시 타이탄스를 공식 후원해왔다. 지금까지 타이탄스 홈구장 전광판 등을 통한 브랜드 광고를 주기적으로 하고, 선수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의류 재활용 캠페인도 연바 있다.

정규황 LG전자 북미지역대표는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하며 미국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오비맥주 카스, 파리올림픽 광고 선배

화합 메시지 담아... 韓 선전 지원

오비맥주 카스가 올림픽 공식 맥주로서 한국 선수들의 올림픽 선전과 응원열기를 북돋울 TV광고를 선보인다.

이번 광고를 통해 카스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단을 향한 응원과 함께 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는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영상은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는 카스 여름 캠페인 모델 세븐틴의 스페셜 뉴틴 '부석순', 직장 동료들 또는 가족들이 각자의 집이나 식당에 모여 화면 속 경기를 지켜보는 장면들로 시작된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과 경기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을 교차해 보여주며, 경기 전의 긴장된 표정부터 승리한 후의 기쁜 환호까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선전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많은 국민을 울렸던 감동의 순간을 재현하기 위해 카스는 해당 광고 영상에 실제 올림픽 중계 화면을 삽



2024 파리올림픽 캠페인 TV광고 /오비맥주

입하여 그 진정성을 더했다.

이번 올림픽 캠페인 광고 영상은 TV채널뿐 아니라 SNS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오비맥주 카스는 2024 파리올림픽 공식 파트너로서 올림픽 한정판 에디션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 6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내 공식 행사인 '올림픽데이런 2024'에 후원사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올림픽 응원 열기를 이끌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나라셀라, 제주도 자연보호 팔 걷어

웰니스 다이닝·클린 캠페인 진행

와인 수입사 나라셀라는 지난 5~6일 '돈나푸가타 리게아 2023' 출시를 기념해 제주관광공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문화와 자연 보호를 위한 '웰니스 다이닝'과 '클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돈나푸가타 와이너리가 위치한 이태리 시칠리아 섬과 제주도가 갖고 있는 화산섬이 토속적인 작물과 풍부한 식생을 보유한 아름다운 섬이라는 공통점을 살려 음식 문화와 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알리고자 진행했다.

지난 5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건축자산인 고씨주택(제주책방 사랑방)에서 제주의 건강한 식재료와 이태리 시칠리아의 대표 와인 돈나푸가타의 페어링을 통해 두 섬의 신화, 문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웰니스 다이닝'을 선보였다. 이 특별한 경험은 제주관광공사 SNS를 통



나라셀라는 제주도 일대에서 클린 캠페인을 진행했다. /나라셀라

해 관광객, 제주도민대상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했다.

또 6일에는 제주해양쓰레기수거청년 단체 '디프다 제주'와 함께 클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호테우 해변 일대의 해양정화 활동 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돈나푸가타 와인을 즐기는 밉글링 파티를 진행했다.

한편, 돈나푸가타는 160년 전통의 시칠리아 와이너리로 이태리 프리미엄 와인 생산자 연합 '그란디 마르키(Grandi Marchi)'의 멤버다.

/신원선 기자

여경협, 여성기업 역량강화 교육 실시

이커머스 주제 2차 교육 진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제3회 여성기업주관을 맞아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 2차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교육: 이커머스 성공의 열쇠'를 개최했다.

9일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여경협이 주관하는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일환으로 우수한 여성기업 제품을 발굴해 대중적인 브랜드 구축

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올해 4회에 걸쳐 온·오프라인을 통해 ▲해외 판로 진출 ▲이커머스 성공전략 ▲2024 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협상 전략 등을 주제로 총 700여 개사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계획했다.

'이커머스 성공의 열쇠'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이커머스 시장의 이해 및 매출 증대 전략, 지속 성장을 위한 소구점을 발굴하기 위한 강좌로 구성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부산서 '사이버보안' 캠페인 전개

예탁원·BNK부산은행 등 참여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사진)이 정보보호의 달(7월)을 맞아 부산지역 금융권·공공기관과 '사이버보안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9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최근 신기술을 악용한 사이버사기, 악성 메일 등 보안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이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캠페인은 국가정보원의 지원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BN



K부산은행 등 부산 소재 주요 금융권 및 공공기관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기보는 7월 한 달 동안 ▲SNS 릴레이 캠페인 참여 ▲사이버보안 관련 예방 포스터 4종 제작 및 영업점 게시 ▲전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문제풀이 이벤트 진행 ▲사이버보안을 강조하는 문구가 담긴 물티슈 제작 배포 등을 통해 기보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사이버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속 사이버보안의 실천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음

▲장안수씨 별세, 장우경(교보생명 전무)씨 부친상=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2-3410-6917

▲김효정(목원대학교 전 안전관리처장)씨 별세=9일, 대전 유성한가족병원 장례식장 특 8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42-611-9700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3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10년째 땅만 다지고 있는 GBC



기자 수첩

양성운
(산업부)

“10년째 땅만 다지고 있는데 짓기는 할까요?”

현대자동차그룹과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설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인허가를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을 벌이자 이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사업 시행자인 현대차그룹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GBC 인허가를 위해 만만치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재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GBC 설계 변경을 두고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전협상에서 서울시는 최대 105층,

용적률 799%를 허가해주기로 했다.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인 공공기여 금액은 1조7491억원으로 정했다. 혜택을 주고,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그룹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건설비용과 활용성을 고려해 GBC를 기존 105층에서 55층으로 변경했다. 건물 높이와 디자인 등 건축계획 위주의 변경으로 서울시에 조속한 인허가를 요청했다. 사실 현대차그룹이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액(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도 기존 약 1조7000억원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2조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여러 조건이 다른만큼 '혜택'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공기여를 조정하지 않고는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0조원의 한전 부지는 10년 동안 텅 비어 있다. 아직까지 공사도 착공하지 못했다. 결국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교통혼잡과 이동불편 등 피해는 고스란히 민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GBC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까지 연계해 개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안이다. 서울시와 국토부, 현대차그룹 모두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기 보다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윈윈한 합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서울시가 '사전협상 취소'를, 현대차그룹은 '사업포기 후 토지 매각' 등을 결정해 과묵으로 치닫게 될 경우 그 불편은 시민의 몫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ysw@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옥스퍼드대와 인류 미래 그린다

영 옥스포드대 산하 미래연구센터 설립 미래연구센터장에 라파엘 라미레즈 교수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그룹의 장기적인 미래상과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옥스포드 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컨보케이션 하우스에서 '옥스포드-현대차그룹 미래연구센터(이하 미래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HMG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 GSO(Global Strategy Office)본부장 김홍수 부사장, 옥스포드 대학 경영대 수미트라 두타 학장, 조나단 레이 놀즈 부학장, 라파엘 라미레즈 교수, 트루디 랭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옥스포드 대학은 자체 보유한 미래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OSPA)을 통해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데 강점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래연구센터를 통해 미래 사회의 지정학적 변화와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의제를 도출하고 인류의 진보를 위한 혁신적이고 독



HMG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왼쪽부터), 옥스포드 대학 경영대 수미트라 두타 학장, GSO본부장 김홍수 부사장이 8일(현지시간) 옥스포드 대학과 영국 옥스포드 컨보케이션 하우스에서 열린 '옥스포드-현대차그룹 미래연구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창적인 연구로 바람직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정부 기관, 국제 기구, 학계 및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도출하고 ▲미래연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리더십 워크숍을 시행해 확보한 인사이트를 현대차그룹의 미래 전략 수립에 활용한다는 목표다.

미래연구센터장에는 미래 시나리오 플래닝 연구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라파엘 라미레즈 교수와 세계경제포럼 전략 예측 프로그램과 OECD 사무총장실 미래

전략 고문을 거친 트루디 랭 교수가 위촉되었다.

HMG경영연구원장 김견 부사장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경영환경의 변화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미래연구센터가 조직 내에 미래를 다각적으로 바라보고 재구성하는 능력(Future Literacy)을 배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미트라 두타 학장은 “옥스포드 대학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가치 기반 연구 역량으로 현대차그룹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음 6월 5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오늘은 새 식구가 들어와 즐겁다 이익이 많다. 48년생 비단옷 입고 밤길을 돌아다니는 격. 60년생 의견통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맡아라. 72년생 최선을 다해라 또 다른 것을 즐긴다. 84년생 건강이 염려되니 먹는 것에 주의.



37년생 무릇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49년생 동분서주해 봐야 이익이 별로 없다. 61년생 지혜가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이 된다. 73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85년생 부동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을 추진을.



38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 50년생 싸우지 말고 이혼 위기를 극복하라. 62년생 정치적인 인젠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74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라. 86년생 익숙한 일도 가볍게 보지 말자.



39년생 언제나 진리의 길은 가까운 데 있다. 51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건 아니다. 63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75년생 허투루가져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 낭패. 87년생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자 도움이 된다.



40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도 피곤. 52년생 로또를 사고 나서 되든지 안 되든지가. 64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하면 도움. 76년생 좋은 향을 종이에 쓴 것처럼 아름답게 표현. 88년생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애 키우지 말도록.



41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53년생 칠혹같이 캄캄해도 곧 새벽이 오겠다. 65년생 매력적인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 77년생 진인사 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 89년생 아직 팔팔한데 기죽지 말고 살자.



42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한다. 54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자. 66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78년생 오늘날만큼은 백만 송이 장미가 깔린 길을 걷는 기분. 90년생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놔둬라.



43년생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서 삼겹살을 먹어보자. 55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피하는 게 상책. 67년생 멍석에 깔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79년생 조심할수록 좋다 실수도 하지 않도록 점검. 91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다.



44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려 온다. 56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68년생 오늘날만큼 서류를 제출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80년생 너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92년생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하루.



45년생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린다. 57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노동력이 따라 주지 않는다. 69년생 오늘은 웬지 지혜가 생기고 영업도 잘된다. 81년생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 93년생 백절불굴(百折不屈)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46년생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여유를 준다. 58년생 보통 있는 일에 시시비비 가리지 말 것. 70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과 비빌 언덕이 필요한 날. 82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으면 기다려보자 결과가 있다. 94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줘서라도 달래라.



47년생 오늘날만큼은 받았으면 자신도 베풀어라. 59년생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자. 71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83년생 가족으로 인해 곤경에 빠짐. 95년생 기다릴지 버리는 것이 좋은지 판단이 어렵다.



김상회의四季

필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충청도 김상회풍경소리 옆 마당으로는 자못 키 큰 화분 몇 개를 두고 있는데 나무라고 여겨서인지 아침이면 새소리에 잠을 깬다. 필자가 충청도 종근당 뒷마당에 있는 작은 기와집 세 채가 있던 시절부터 거쳐왔고 쌀을 주곤 했는데 너무나 당연한 듯 아침이면 찾아와 지저귀니 식구 아닌 식구가 돼버렸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느낀 것은 새들이 필자를 반긴다는 것이다. 그들도 나를 식구로 여기는 것일까? 어젯밤에 여러 원고며 밀린 정리를 하다가 늦게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오늘 아침 역시 어김없이 찾아와 왜 아직 문을 열고 나오지 않느냐며 채근댄다.

새들에 대해 조예가 깊지는 못하지만 말로는 통하지 않아도 느낌으로는 서로를 아는 것이라. 새와 인간은 의외로 친밀하다. 비둘기는 편지와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쓰기도 했다. 머리가 좋고 사납다고 여겨지는 매는 사냥의 친구이자 흥함을 쫓는 부적의 단골 상징이기도 하며 까마귀는 새 중에 장유유서가 뛰어나 효도의 상징으로 인정받는다. 그러하니 전해오는 이야기에 은혜를 아는 새, 까치와 선비에 관한 얘기도 다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다.

까치가 은혜를 갚았다는 얘기가 우리 선조들에게는 의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친근한 새들에 비해 전설과 신화에 나오는 봉황은 천자를 상징하는 새이다. 따라서 봉황의 문양은 귀족조차 쓸 수 없고 오로지 천자와 제후의 독점 문양이다. 매우 드물게 출현하여 커다란 사건의 징후를 나타내거나 군주의 위대함을 보인다고 하는 상서로운 새이니 왕으로부터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새들은 몹시 인연이 지중해 보인다. 조두머리는 말을 마구 쓸 것이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책 출간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매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6			3			
				8	9			
			9				4	
8					4	2		
	6	4						3
6				8				
	1		9					
2				6	5	7		

4	8	5			3			9
		3						
7			1			5	6	
								7
	2				5			
3								
2	9			3				1
1	7				2	6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6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특셈브르크 국립보건원 한국분원 설치 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기관 등 찾아 투자처 확보 글로벌 자족도시 도약 올인”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총력

130여개 기업·기관 투자유치 활동
투자의향서 72건 등 투자액 6.3조
철도·도로망 확대로 교통여건 개선

민선 8기 2주년을 맞은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동환 고양시장 취임 직후부터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경제분야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2022년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지정되었고 올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 최종신청을 앞두고 있다. 최종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글로벌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최종신청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투자수 확보를 위해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첨단기업, 연구소, 교육기관을 직접 찾아가며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최대 관건은

투자수 확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투자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투자유치단을 발족하여 약 130여개 기업 및 기관에 투자유치활동을 진행했다. 현재까지 확보한 투자수요는 투자의향서(LOI) 72건, 업무협약(MOU) 43건이며 투자금액은 약 6조34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지금까지 적립한 470억원의 투자유치기금을 활용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출퇴근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철도·도로망을 확대하고 교통환경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해선 소사~일산역 구간이 개통되어 서울 서부 및 경기도 남부지역 이동 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접근성이 향상됐다.

올해 연말에는 GTX-A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어 광역 출퇴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양시에는 킨텍스, 대곡, 창릉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입학사정관, 퇴직 3년간 학원·과외 금지

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개정안 제출

앞으로 퇴직 후 3년이 안 된 대학 입학사정관이 학원 설립 및 취업은 물론, 교습소나 과외 활동을 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제도에 따라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정 전문가를 가리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

하고 있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입학사정관이 학원에 규정되지 않은 소규모 교습소를 만들거나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 제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입학사정관의 설립·취업 대상에 교습소와 과외교습을 포함했다. 이를 어겨 적발된 입학사정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잠실돔구장’ 짓는 5년간 ‘잠실 주 경기장’서 야구경기 한다

프로야구 LG트윈스·두산베어스
2027년부터 대체 야구장 활용
1.8만석 규모… 향후 3만석 조성

서울시는 잠실돔구장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약 5년간 ‘잠실 주 경기장’을 대체 야구장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잠실야구장을 흡음으로 사용하는 프로야구 ‘LG트윈스’와 ‘두산 베어스’는 2026년 시즌까지 잠실구장을 사용하고, 2027년~2031년 총 5시즌을 대체 야구장에서 경기한다.

경기장 좌석은 그라운드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내·외야를 중심으로 1~2층에 총 1만8000여석 규모로 만든다.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람객 안전이 확인되면 주요 경기와 포스트시즌 때는 3층 관람석까지 개방해 3만석 이상 규모로 관람석 조성이 가능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관람객 안전을 위해 봉은교 방향의 서쪽 진출입로와 함께 잠실종합



잠실 돔구장 실내 조감도.

/서울시

운동장 북쪽 부근 공사 영역 조정 등으로 백제교분로 방향의 동쪽 진출입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대체 구장 조성에는 300억~4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는 상업광고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두 구단과 비용보전 방법을 협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잠실 주 경기장은 돔구장 건립 기간 대체 야구장으로

사용되는 곳이지만 임시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람객들의 편의에 초점을 맞춰 조성할 것”이라며 “아울러 야구팬들의 기다림에 부응할 수 있는 잠실 돔구장 건립도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개발 사업’과 함께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유보통합 재원 확보 위해 특별회계 등 설치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회에 제안
국회·정부 협조 필요한 22대 과제
세입축소, 교육여건의 후퇴 불러

정부가 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22대 국회에서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아 ‘공존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2대 교육과제’를 22대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책 추진 난관을 극복하고 전국적인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 협조가 필요한 22대 과제를 발굴·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중·고·대·시급성·과급력 등을 고려해 주요 10대 과제를 선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유보통합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영유아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와 ‘영유아보육경비전담금’ 설치 등을 통해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 자체사업(자율시책사업)을 포함한 기존 영유아보육 재정에 대한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고, 유·보 교사 처우 개선 등 상향 평준화에 소



요되는 추가 필요 재원은 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방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따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학생수’에 따른 세입 축소는 교육여건 후퇴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 우려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

련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밖에 10대 과제로는 ▲학생맞춤형 합치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고등교육 서열화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이 꼽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제22대 국회의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22대 교육과제를 제안하고, 이달 중 마련될 국민의힘과의 자리에서도 해당 과제를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55

7월 10일 (수)
음력 : 6월 5일

수도권 날씨
23~3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22/29, 동두천 22/30, 가평 22/30, 파주 21/29, 서울 23/30, 양평 23/29, 인천 22/29, 수원 23/28, 용인 23/28, 평택 22/2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바이든 완주 의지에 공화당은 축제 분위기
▲ 러, 우크라 아동병원 등 대공습... 200여명 사상·애도의 날 선포

▲ 中대학, ‘판다 전공’ 신입생 첫모집... “판다 안고 수강 가능해요?”
▲ 韓북핵대표, 11일 북미회담인력특사 접견... 北인권 문제 논의



▲ 日 자위대 채용률 50.8% 사상 최저... 잇단 비위·저출산 등 여파
▲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발표 임박... ‘10기 수출’ 첫 단추 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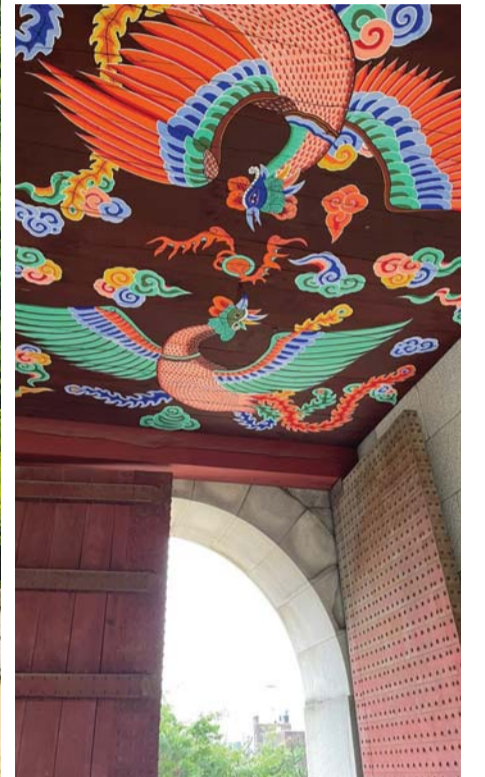


삼성전자
HPC·AI 생태계로
기술혁신 가속
04

다가오는 초복
외식보다 알찬
간편보양식으로
니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혜화문을 찾았다.



성문 다락 천장에 그려진 봉황. /김현정 기자

‘새의 왕’ 봉황 새겨진 동쪽 소문... 600년 한양도성 품다

♥ 되살아나는 서울

㉞ 종로구 ‘혜화문’

한양도성 성곽 축조하면서 세운 성문
창건 당시 ‘홍화문’으로 불리던 동소문
창경궁 동문과 이름 중복 돼 명칭 바뀌

1920~30년대 헐어지고 뚫렸던 성문
1992년 복원공사 통해 지금 모습으로
새 인한 피해 많아 천장에 봉황 그려져



한양도성을 따라 혜화문으로 이어진 오솔길.

“너는 사정이 어지간만 하면 한양 사대문 밖에 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사대문 안에서 살아라. (중략) 그것도 힘들거든 사대문 가까운 곳에서는 살아야 한다. 그래야 여러 가지 보고 듣는 게 많고 기회들이 많다.”

‘서울문화, 그 정체성을 묻다’의 저자인 송도영 한양대 교수는 “누구보다도 백성의 삶을 근심하면서 관리의 임무는 결국 민본주의임을 역설했다고 알려진 다산 정약용 조차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위와 같은 편지를 보냈다”며 “지방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에게 있어서 서울은 그렇게 애증의 복잡한 감정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책에 따르면, 조선의 서울인 한성은 전국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도시가 됐고, ‘사람이 새끼를 낳거든 서울로 보내고 말이 새끼를 낳거든 제주도로 보내라’는 소름 끼칠 듯한 속담이 당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사대문과 사소문은 조선의 초대 왕 태조 이성계가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왕권을 과시, 외부 침입으로부터 도읍지를 보호하고자 1397년 한양도성을 에워싸는 성곽을 축조하면서 함께 세운 성문이다.

◆홍화문—혜화문, 개칭 이유는?

보슬비가 추적추적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혜화문(창경궁로 307)을 찾았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로 나와 혜화동 로터리 방향으로 270m(도보 약 4분 소요)를 걸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혜화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공사 현장 안전 고갈이 설치됐고, 그 앞에는 접근 금지 표지가 붙어 있었다. 현재 보수 중이니 북문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아담한 정자 하나와 벤치 두어개, 공중 걸기와 허리 돌리기를 위한 운동기구, 음수대 등이 마련된 쉼터가 나왔다. 정비를 위해 쉼터 이곳저곳에 빙 둘러놓은 ‘위험, 안전제일’ 테이프는 누군가가 거칠게 잡아 뜯은 탓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화단에 버려진 하늘색 여행용 캐리어가 처량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쉼터와 이어진 오솔길을 따라 혜화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 성북구에는 한양도성의 동북쪽 작은 문 ‘동소문’이 자리한 지역이라 해 동명이 ‘동소문동’인 곳이 있다. 창건 당시 동소문은 ‘홍화문(弘化門)’으로 불렸으나, 성종 때 지은 창경궁의 동문에 같은 이름이 붙으면서 헷갈리지 않

게 하기 위해 중종 6년(1511) ‘혜화문’으로 이름을 갈았다.

◆다락 천장에 용 대신 새긴 봉황, 왜?

혜화문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우진각 지붕 건물 구조로 정면에서는 지붕이 사다리꼴로, 측면에선 삼각형으로 보인다. 영조 때 없던 문루를 지어 올렸으나 1928년 없었고, 흥에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1938년에 소실됐다.

혜화문은 다락이 낡고 헐었다는 이유로 왜인의 손에 의해 헐렸다. 1928년 전차가 뚫리며 사라졌고, 1939년엔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아치 석재부 마저 없애버렸다. 지금의 혜화문은 1992~1994년 복원 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래보다 북쪽에 문루와 흥예를 새로 지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른 성문의 다락 천장에 용 그림이 새겨진 것과 달리 이곳엔 봉황이 그려졌다. 이 부근에 새로 인한 피해가 커 이를 막기 위해 새들의 왕이라고 하는 봉황으로 제압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성북구 삼선동에는 과거 ‘봉황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곳의 마을명 역시 새가 주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봉황정이라는 정자를 세운 데서 유래됐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임생 독박·박주호 폭로...홍명보 선임 거센 후폭풍
▲이영표 “홍명보, 이해할 수 없는 결정...국민들 지지할지 의문” /사진 뉴시스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 후폭풍...박주호 폭로에 법적대응 검토
▲최두호 등 한국인 파이터 4명, 21일 UFC ‘코리아 데이’ 출격



▲5위와 10위가 5G 차...프로야구 후반기, 역대급 순위경쟁 시작
▲LG·두산, 돔구장 짓는 동안 잠실주경기장을 홈으로...최대 3만석 /사진 뉴시스